

2주차**조선 전기와 한양**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6차시	오늘날의 한양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공간>과 관련해서 ‘조선 전기와 한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신호림입니다. 이 강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삼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기’라는 시간적 배경과 ‘한양’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초대 국왕으로서 개창한 새로운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 이전 시기까지 한반도에는 918년에 건국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한양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서울이 바로 한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라가 세워지고 수도를 한양에 마련한 조선 시대부터 바로 서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선 전기와 한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전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조선의 역사적 분기점을 나눌 때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양란으로 불립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병자호란은 1636년에 발발하죠. 전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오며, 전쟁 이후에는 그 전에 통용되었던 삶의 방식과 세계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삶의 양태와 세계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이 역사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17세기까지를 ‘조선 전기’로 보고, 18세기부터 19세기를 조선 후기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를 조선 전기, 17세기를 조선 중기, 18세기와 19세기를 조선 후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 구분에도 전쟁은 중요한 시기 전환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전

쟁의 시기를 또 다른 독립된 역사적 시간으로 바라보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 관점에서 조선 전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진왜란 시기 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한양’ 중 이번 강의 주제는 바로 ‘조선의 건국과 한양’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 지금의 개성 지역이었습니다. 한양은 고려 시대 때 ‘한양부’라고 불렸지만 남쪽의 수도라는 의미로 ‘남경’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고려 시대 말 우왕과 공양왕 통치 시기에는 수도로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자연스럽게 남경 지역이 수도로 채택되었고,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서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조선의 건국을 다루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한양은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어떻게 건국되었고, 본격적으로 한양이 수도로서 기능하면서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조선의 건국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짧게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 건국된 나라입니다. 왕건은 지방 세력의 중심을 이루었던 호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호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음서’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음서는 과거와 같은 국가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서로 정계에 진출하는 세력과 다르게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는 집단도 있었겠죠. 그들을 편의상 ‘신진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식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문벌 귀족과 대립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이미 세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었던 문벌 귀족의 위세를 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170년, ‘무신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란은 문신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무신 집단이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무신정권의 시작입니다. 이때 문신들은 문벌 귀족이 중심을 이루었겠죠. 무신들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에서는 문벌 귀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신진사인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며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공생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신정권이 성립된 이후에도 고려는 안정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31년, 몽골

침략이 시작되었고 1361년에는 홍건적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고려의 국력은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또 다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이지요. 권문세족은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을 때 원나라에 충성을 하며 권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려 왕 이름에도 모두 ‘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등 고려의 25대 왕부터 30대 왕까지 모두 이름에 ‘충’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충은 원나라를 향한 것이며 고려의 굴욕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권문세족이 정계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신흥사대부라고 부르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유학 중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권문세족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신흥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한 주역입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였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본래 고려는 불교를 사상적·종교적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성리학으로의 사상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여러 국면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한양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서울을 고려의 서울과 다른 한양으로 새로 잡은 것은 이런 새로운 출발과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서울에 자리 잡은 토착 세력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서울은 ‘수도’라는 뜻입니다. 서울은 원래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한국의 수도를 의미하는 지명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서울이란 단어를 직접 수도로서 이름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건국 이전의 고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고려는 수도의 위치에서부터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적인 배경까지 모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기존의 국가와는 차별되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했기에 사상적 근간뿐만 아니라 바로 수도도, 서울도 바뀌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꾼 수도가 바로 조선의 한양이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출발인 한양에서 서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e뮤지엄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학습 목표

-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조선과 한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고려 말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몇몇 문학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려 시대는 ‘한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쓴 시입니다. 하지만 ‘시’라고 해서 그 내용이 마음의 정서를 풀어내는 것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 문학도 상당히 많죠. 먼저 살펴볼 작품은 신진사인의 작품입니다. 신진사인은 정권을 장악한 문벌 귀족에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 중에는 농민들의 삶을 묘사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극기의 <보산역에서>라는 작품을 볼 겁니다. 김극기는 농촌과 농민을 제재로 여러 편의 시를 남긴 인물입니다. 과거 급제 후 바로 등용되지 못하고 10여 년을 방랑하며 전국을 여행하면서 농민들의 삶을 관찰한 것이죠. 관직에 나아가서도 여행을 자주 하면서 삶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이를 시로 옮기곤 했습니다. 문집은 현전하지 않지만 <<동국여지승람>>에 200수가 넘는 많은 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계곡 마을 / 뽕나무 심어놓은 서너 집 어부는 조용히 낚시를 드리우고 / 아이는 한가로이 사냥 그물 엮는다 / 언덕 위 솔방울은 바람에 떨어지고 / 담장 이끼에 핀 꽃 위엔 비가 내리네 / 밭 갈고 누에 치는 이외에 / 한가로이 세월 보내는 너희 모습 부럽구나”

<보산역에서>는 목가적인 전원의 모습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를 보면 한가로운 정경과 이를 부러워하는 화자의 탄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당대의 사인들이 꿈꾸었던 강호 자연에서의 자유로운 삶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밭 갈고 누에 치는 노동의 생활 이외의 것들이 부럽다고 되어 있죠. 신진사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 있지만 그들의 노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농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편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규보의 시입니다. 그의 시는 김극기의 시보다 한층 심화된 현실을 한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재가 뛰어났지만 과거

에 거듭 낙방했던 이력이 있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자 무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입신양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규보의 시 중 〈농부를 대신하여 읍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 왕손 공자들아 나를 멸시 말라 / 그대들의 부귀영화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 햇곡식은 푸릇 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 아전들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네 / 힘써 농사지어 부국케 하는 것은 우리들 농부거늘 / 어째서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이 시에서는 농민이 화자로서 농민의 정서와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농민의 강한 반발심 및 분노의 직접적인 표출이 인상적인 한 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규보의 신분과 계급을 고려한다면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 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를 대신하여 읍다〉에서 보이는 항의는 농민의 역할과 수고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시대적으로 매우 진보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규보는 농민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김극기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진사인들의 시를 봤으니 이제 신흥 사대부의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검토할 시는 이곡의 작품입니다. 이곡은 한산 지역의 향리 이자성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나라에 머물면서 고려와 원나라, 양국에 걸쳐 관직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지요. “부지런하면 군자가 되고 게으르면 소인이 된다. 부지런하면 부귀에 이를 수 있고 게으르면 마침내 빈천하게 된다. 이것이 상리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권문세족과는 달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중앙 관계에 진출해야만 했던 신흥사류의 생활신조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곡에게 있어서 권문 사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곡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은 재물과 권세로 능력과 지혜를 평가하며 조의와 유관을 광대 놀음으로 여기고 직언 정론을 향간의 미친 소리로 취급하고 있으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는 권문세족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신흥 사대부로서의 자부과 포부에 대한 역설적 웅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곡의 시 중 〈기행시 한수-청주참군에게 주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 리나 오 리 길을 가는 사이에도 / 역마를 탄 사신들 놀랍게도 많아 말에서 내려 길 옆에 서 있노라면 / 유성처럼 눈앞을 지나가곤 하였는데 내 혼자 생각에 임금님이 덕음을 내려 / 농민에게 은혜를 펼치려는가 하였더니 혹자는 말하기를 간구를 계산하여 / 불쌍한

백성들까지 착취한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산야를 농단하여 / 토지 떼어 내 겸병하는 이들에게 바친다고 하네 / 나는 산을 하나 사서 이 세상 떠나 / 푸른 산 빛 들어오게 격자창 열어 놓고 정원에는 기르나니 소나무 대나무요 / 문밖에는 찰벼와 메벼 심고 싶어라 / 울울창창 나무 그늘에 앉아도 보고 / 차디찬 맑은 샘물을 마셔도 보고 날마다 세심경이나 펼쳐 보면서 / 세상일에 얽혀들지 않게 하고파라 / 하지만 한 자의 땅도 금혈에 들어가니 / 어느 곳에 사립문을 세울 수나 있겠는가 / 그래서 분주한 관직에 종사하면서 / 일 년 내내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네”

이 시에서는 대토지 소유자와 향촌의 소작 농민 사이의 모순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가혹한 세금과 권세가의 토지 겸병, 그 때문에 신음하는 농민의 비참상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중앙 관계에서 물러 나와 귀촌하여 농사나 지으려 해도 한 자의 땅도 권세가에게 다 들어가 남아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흥 사대부 또한 대토지 소유자와 향촌의 소작 농민 사이에서 모순 구조의 경계인으로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 탈점과 겸병은 중소 지주층의 신흥 사대부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위무하며 함께 권문세족의 횡포에 분노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학문적 입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신흥 사대부의 처지가 농민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진사인에 비해서 더욱 농민들의 삶에 밀착되어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음에 볼 시는 윤여형의 <도톨밤 노래>입니다. 윤여형은 종9품 벼슬인 성균관의 학유를 지냈다는 기록 외에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시를 통해 그가 강원도 지방을 방랑했고 한때 전라도 영광 땅에서 어느 절에 불살이를 했던 것을 추정할 뿐 재야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의 부족함에 비해 윤여형의 <도톨밤 노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삶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접 농사를 체험하는 등 당시 농민의 실정을 관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 도움 될 훌륭한 방책이 없으니 책을 던지고 늙은 농부를 배우네.”라는 그의 말에서 윤여형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 관인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는 물러나 농사를 배운다는 중소 지주층의 생활 자세를 발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신흥 사대부의 관인 의식의 일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가 길지만 차근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톨밤 도톨밤 밤이 밤 아니거늘 / 누가 도톨밤이라 이름지었는고 / 맛은 썸바귀보다 쓰며, 색은 숯보다 검으나 / 요기하는 덴 반드시 황정보다 지지 않나니 / 촌집 늙은이 마른 밥 싸 가지고 / 새벽에 수탉 소리 듣고 도톨밤 주으러 가네 / 저 만 길 벼랑에 올라 /

침뎡굴 헤치며 매일 원숭이와 경쟁한다 / 온종일 주워도 광주리에 차지 않는데 / 두 다리는 동여놓은 듯 주린 창자 쪼르륵 / 날 차고 해 저물어 빈 골짜기에 자네 / 솔가지 지퍼서 시내 나물 삶는다 / 밤이 깊자 온몸이 서리에 덮이고 이슬에 젖어 / 남자 여자 앓는 소리 너무나 구슬퍼라 / 내 촌집에 들려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 늙은 농부 자세히 나보고 얘기한다 / 요사이 세력 있는 사람들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 산이며 내로써 한계 지어 공문서 만들었소 / 혹은 토지에 주인이 많아서 / 도조를 받은 뒤 또 받아가기 설 새 없소 / 혹은 수한을 당하여 흉작일 때에는 / 해묵은 타작 마당엔 풀만 엉성하다 / 살을 굵고 뼈를 쳐도 아무 것도 없으니 / 국가의 조세는 어떻게 낼꼬 / 몇 천 명 장정은 흩어져 나가고 / 노약만 남아서 거꾸로 달린 종처럼 빈집을 지키누나 / 차마 몸을 시궁창에 박고 죽을 수 없어 / 마을을 비우고 산에 올라 도토리며 밤이며 줍는다고 / 그 말이 처량하여 간략해도 자세해 /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라 / 그대 보았잖나, 고관집 하루 먹는 것이 만 전 어치 / 맛있는 음식이 별처럼 별려져 있고 다섯 술이 널려 있지 하인도 술 취하여 수레 위 비단 요에 토하고 / 말은 배불러 금마판에서 소리치네 / 그들이 어찌 알기나 하랴 그 좋은 음식들이 / 모두 다 촌 늙은이 눈 밑의 피인 줄을”

첫 번째 부분은 도토리를 주우러 산을 헤매는 남녀 촌로들의 처참한 정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씹바귀보다 씹쓰름하지만 그래도 도톨밤이라 칭하며 힘들게 주워 모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농부의 말을 통해 권문세족이 민전을 탈점하고 검병하여 농민을 핍박하는 모습과 조세를 독촉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왜 그들이 도토리를 줍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장정들은 모두 도망치고 노약자만 남아 연명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권세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신진사인의 사례로 이규보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이규보는 비판의 대상이 농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부당한 수탈을 자행하는 탐관오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여형은 권문세족을 타파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진사인과 신흥 사대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여형의 시대에 신흥 사대부들은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조의 창출까지 전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망 아래에서 타파해야 할 대상을 권문세족으로 한층 분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흥 사대부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그 형상화의 과정에서 노동과 생산의 주체인 농민에 대한 신진사인들의 인식을 계승하는 한편 자신들의 역사적 위상과 전망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 말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신흥 사대부는 권문세족을 구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과 함께 당대 최고의 무장인 이성계를 추대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주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가 되어서 새 왕조를 이끌었죠. 그 과정에서 신흥 사대부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조선은 신하의 권력, 신권이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왕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서 항상 왕권과 신권 사이의 긴장·갈등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서 그런 긴장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한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사적 배경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한 이후 한양에서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권의 강화,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 이후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의 치세까지 그 모든 일이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참고문헌】

- e뮤지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고전번역원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학습 목표

- 조선 전기 사대부의 문학을 통해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주요 사건과 한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 수도를 정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중소 지주층 출신의 신흥 사대부와 이성계의 군벌 세력의 연합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조를 개창했고 역성혁명의 이론적 기반은 고려 말의 신흥 사대부 계층에 의해 수립된 것이었죠.

그런 이론적 기반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악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새 왕국과 왕에 대한 칭송,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들의 열망, 그리고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 등을 담은 악장은 궁중에서 종묘 제향 때 부르던 일종의 송축가를 지칭합니다.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 초기에 발생해서 세종 때 성행하다가 성종 이후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시조의 원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4구 2절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조선의 창업을 칭송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조선조의 권신들이 주 향유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림가>, <신도가>, <옹비어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림가>입니다. 유림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신흥 사대부를 지칭합니다. 현대어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백 년이 지나 황하가 물이 맑아 성군께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시니 모든 백성이 골고루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다. 고려 왕조 오백 년이 지나 기수의 물이 맑아 성군께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시니 온갖 곡식이 풍성하도다. 아궁차락 아궁차락 궁차락아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 가서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리라.”

마지막 구절은 <<논어>>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뜻하는 바를 묻자 모두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때 증석이라는 제자만이 “봄옷을 펼쳐입고

친구와 어린이들과 함께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 노래 부르고 돌아오고 싶다.”고 대답하자 공자가 칭찬했다는 일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자연에서의 안빈낙도를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엽’이라고 표현된 후렴구를 보면 리듬을 살리는 동시에 한자 뜻까지 갖추고 있죠. 나름의 문학적·음악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림가〉는 유림 자신들의 이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인 조선 건국의 위업으로 문치 태평하다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후렴구의 중의적 표현은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서 지킨다는 뜻으로 부에 욕심이 없으면서도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림가〉를 읽어 보면 “현실 정치의 삶은 자연에서의 삶이고 안빈낙도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림들이 추구하는 성리학적 지향은 자연에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곧 현실 정치와 일치하니 엄청나게 태평 성대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유림가〉를 통해서 당시의 유림들이 얼마나 스스로 조선 왕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리학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볼 악장 작품은 〈신도가〉입니다. 제목 그대로 새로운 도읍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로 한양이죠. 〈신도가〉는 정도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로구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대를 이룩하셨도다.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임금께서 만 년을 누리시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시도다. 아으 다롱다리 앞에는 한강물이며, 뒤에는 삼각산이며, 복덕이 많으신 강산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1~2구에서는 새로운 도읍을 찬양합니다. 3구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성덕을 송축하죠. 다시 4구에서 새로운 도읍을 찬양하고, 이어서 5구에서 태조의 성덕을 송축합니다. “아으 다롱다리”는 고려 가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여음구입니다. 이 노래가 음악으로도 향유되었음을 알려 주는 하나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구에서 다시 새로운 도읍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이성계의 성덕을 송축하면서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신도가〉는 새로운 도읍의 위치, 도읍으로서의 위상, 풍수적인 특징 등을 이야기하며 신도를 찬양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성계의 성덕도 함께 송축하는 반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에서는 조선의 건국이 곧 백성의 행복이라는 구도를 설정합니다. “임금께서 만 년을 누리시어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시도다.”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도가〉는 ‘태조에 대한 송축은 백성의 행복, 즉 조선 건국의 당위이며 자연 경치’라는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이곳, 한양이 바로 자연으로서의

한양이며 백성들이 행복한 곳으로서의 한양이라는 것이죠. 한양을 매개로 정치와 자연, 현실의 충만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도가>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용비어천가>입니다. 세종 27년, 1445년에 완성한 조선의 건국 신화이자 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며 최초의 장편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노래 제목도 의미심장한데요. ‘용비’는 ‘용이 난다’는 것으로 영웅이 뜻을 얻어 흥기함을 의미합니다. ‘어천’은 ‘하늘에 어거한다’는 것으로 천명에 맞도록 처신한 결과가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용비어천’은 용이 날아서 하늘을 본받아 처신한다는 뜻이고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아올라 하늘의 명을 이행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은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제왕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태어나 나라를 세운 이야기를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를 조선의 건국 신화라고도 부릅니다.

<용비어천가>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적 동기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왕에 대한 권계를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계는 잘못함이 없도록 미리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 동기는 훈민정음의 시용, 그리고 왕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고요.

<용비어천가>는 상당히 깁니다. 총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서사로서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개국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3~109장은 본사로서 중국 고사와 대구를 맞춰서 육조의 사적을 예찬합니다. ‘사적찬’이라고 합니다. 육조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일컫습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이고, 여섯 번째에 있는 태종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짓도록 한 세종은 이방원의 아들입니다. 즉, 육조는 세종의 6대조, 여섯 번째 위의 할아버지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0~125장은 결사로서 후왕에 대한 권계로 끝납니다. ‘계왕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서사를 현대어 역으로 먼저 볼까요?

“해동 육룡이 날으셔서, / 그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린 복이니”

‘육룡’은 조선의 건국이 6대조의 업임을 강조합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조선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으로 거기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휘고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고 내가 일어서 바다에 이르게 되니”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조선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6대조의 업으로 조선을 세우니 조선의 역사는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3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주나라 대왕이 빈국에 사시어서 제업을 여시니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사시어서 왕업을 여시니”

위의 구는 중국의 고사이고 아래의 구는 조선에 대한 것입니다. ‘빈국’은 어디일까요? 주나라 선조 후직은 어릴 때부터 큰 뜻을 품었고, 커서 농사짓기를 좋아하자 백성들이 그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후직의 후손인 공유는 융적의 땅 가까이 살았으나 다시 후직의 업을 일으켜서 빈국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조 중 1대, 목조가 전주에 살았는데 그 주의 관리와 사이가 어긋나자 삼척으로 옮겼다가 다시 함길도 덕원부로 옮기니 170여 호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원나라에 귀부하여 경흥에서 벼슬을 역임하자 동북 사람들이 다시 모두 그를 따랐는데, 왕업을 일으킨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적과 비교하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다시 찾은 것인데요. 중세 시대에는 중국이 대국이었기 때문에 대국의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 또한 중국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장을 볼까요? 현대어 역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훌륭한 임금의 자손이 이으신다 하더라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조상의 공덕만을 믿으시겠습니까?”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에서 현재의 조선이 천명을 받아 덕을 쌓은 상태임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후왕에 대한 권계를 잊지 않고 있죠. 천명을 계속해서 이어 가려면 후왕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수에 사냥”은 중국의 고사입니다. 하나라 태강왕이 조부인 우왕의 덕만 믿고 사냥에 빠져 살았다는 것인데 선왕만 믿고 나태해지면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왕에 대한 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읽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태조 이성계를 유가적 무인, moral giant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기본적으로 무인이지만 도덕적 탁월성을 갖춘 인의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는 고려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용비어천가>에서 고려 말 우왕이나 차왕은 연약하면서 동시에 야만적으로 그려집니다. 건국주를 완벽한 이상형으로 만들고, 그 이전에 있던 고려라는 나라를 비하함으로써 조선의 위상을 드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현대에 이르러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013년 고등학생들이 국어 교사에게 던진 101가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용비어천가 부른다고 하나요?”였습니다. 이는 왕조 창업의 정통성,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조사와 서술 전략이 <용비어천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비어천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아부와 연결시키기보다 어떻게, 왜 아부를 하는지에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용비어천가>와 같은 악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등장한 이른바 건전 가요는 제5공화국이 사회 정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요한 독특한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3년, 국민들에게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거창한 의도하에 한국 방송 공사와 함께 건전 가요를 옴니버스 형태로 제작했던 것입니다. 가수 정수라가 노래한 <아! 대한민국>, 가수 이용이 노래한 <서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이라는 도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서울>의 가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 감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 아아아아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흐르는 /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 빌딩마다 온갖 새들을 오게 하자 / 지저귀는 노래 소리 들어보리라 / 거리거리엔 예쁜 꽃을 피게 하자 / 꽃이 피어나듯 사랑도 피어나리라 / 아아아아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흐르는 /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어떤가요? 정도전의 <신도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과거와 현재 모두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을 한양, 서울과 함께 엮어 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벅스뮤직
- 전통문화포털
- 한국관광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e뮤지엄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 건국을 다룬 사극 드라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악장’만 보면 조선 전기에 조선이라는 국가와 한양이라는 도읍, 그리고 건국의 주체들인 왕과 유림들은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태평한 역사적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시간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왕자의 난’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태조 이성계의 나이는 이미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자 후계자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석과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중심이 되어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정종을 거쳐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398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니 조선 건국 후 불과 6년 뒤의 일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악장의 내용과 달리 아직 조선의 왕권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국가를 연 이후에도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시기는 이후 드라마 사극의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극’은 과거 특정 시대상이 주요 요소로써 창작, 제작된 역사물 드라마 또는 영화, 연극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TV 역사 드라마를 가리킵니다. 이 중 정통 사극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구와 현대적 감각을 최대한 자제한 작품인 데요. 대표적으로 <용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용의 눈물>은 1996년 11월 24일에서 1998년 5월 31일까지 방영된 KBS 주말 사극 드라마입니다. 여말 선초기인 1388년부터 조선 건국 후인 1422년까지 총 34년의 시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한양을 주된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세운 가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의상 제작비에만 10억, 총 160억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이 한 작품에 출연한 출연 인원은 총 7,950명, 엑스트라는 무려 50,000여 명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영화보다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용의 눈물>은 <<조선왕조실록>>이 처음으로 제대로 쓰인 사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3년, 처음 완성되었으나 엄청난 분량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CD-ROM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발매되면서 쉽게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극 대본을 쓸 때 본격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과 왕자의 난 같은 역사적 사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388년,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가 다시 고려로 돌아와 고려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위화도 회군에서는 이성계와 이방원의 야심 넘치는 모습이, 왕자의 난에서는 피의 살육 현장에서도 인간적인 모습 등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용의 눈물>에서 태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방원을 전면에 내세운 사극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방영된 33번째 KBS 대하드라마로 총 32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태종의 여러 면모 중에서 신생 국가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모습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의 건국, 그리고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이 왕으로 등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드라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용의 눈물>에서도 이미 다룬 사건들이지만 이방원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이방원의 시점에서 그려 낸 조선 전기의 사극 드라마라면 다른 관점에서 제작한 사극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2014년 1월 4일부터 2014년 6월 29일까지 방영된 30번째 KBS 대하드라마로 총 50부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장년과 중년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공민왕 말년인 1374년부터 정도전이 이방원과의 다툼에서 패배해 최후를 맞는 1차 왕자의 난 시점인 1398년까지를 그려 냈습니다. 드라마의 설명을 보면 사극이지만 정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세상을 개혁하고자 만났던 동지들과 세상 풍파를 겪고 자신들끼리 의견 충돌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는 과정을 그려 냅니다. 특히 위화도 회군과 우왕, 창왕 폐위로 이미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가 갈라서면서 시작한 ‘용의 눈물’과 달리 <정도전>에서는 두 세력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를 보여 준 다음 그 이후 갈라서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재현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느낌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육룡이 나르샤>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방송된 전 SBS 창사 25주년 특별 기획 SBS 대하드라마입니다. <육룡이 나르샤>는 고려라는 나라를 거대한 악으로 상징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일어난 여섯 인물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통 사극이 아닌 퓨전 사극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용비어천가>에서 육룡은 조선의 6대조를 일컫지만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의 호

응을 이끌어 냈지만 역사적 고증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다 보니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기존의 사극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새롭게 그려 냈다는 점입니다. 조선 전기, 그리고 한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 KBS
- SBS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학습 목표

-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세종대왕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건국 주체들이 가졌던 희망찬 모습과 이와 대조되는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수많은 사극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었죠. 그런데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의 시기도 만만치 않게 오늘날에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태종대에 이르러 조선의 왕권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왕으로 등극한 세종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국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국왕입니다. 묘호는 세종,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 본명은 이도, 자는 원정, 아명은 막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이 건국된 해인 1392년에서 5년이 지난 1397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었던 태조, 정종, 태종과 달리 조선인으로 태어난 첫 조선 국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32년의 재위 치세 동안 수많은 치적을 남겨 조선은 물론 한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더불어 대왕이라는 호칭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단 둘뿐인 군주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한국에서 뽑은 최고의 위인으로 항상 선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현대의 대한민국, 북한의 공용 문자로 지정되어 통용되고 있으며, 세종대왕 시대에 확립된 북방의 국경은 그대로 한반도 이북 지역의 국경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의 치세는 현대 한국인의 문화와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세종은 이순신과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과학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서 이 시기에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혼천의 등도 발명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훈민정음 창제였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으로서 곧 한글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세종이 지은 서문과 글자의 목록과 운용 규정을 실은 <<훈민정음>> 예의, 그리고 그 해례를 밝힌 책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책 이름 <<훈민정음>>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훈민정음>> 예의와 이를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가 있으며, <<훈민정음>> 예의는 다시 한문 실록본과 이를 언해한 <<훈민정음>> 국역본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관련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표를 보면 1442년에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일종의 조선의 건국 신화로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언문 28자를 창제합니다. 우리가 흔히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1443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훈민정음 창제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만리와 같은 신하들이 1444년에 바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멈추지 않았고 1446년 9월,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완성하고 여러 서책들을 간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훈민정음의 완성은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한자나 이두를 빌려서 표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한국어의 표현과 문자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생각이나 느낌을 온전히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조에는 한자는 사대부를 제외하고 지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문자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비로소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학을 뜻하는 literature의 어원은 literacy에 있는데요. literacy는 문해력을 뜻하죠. 문자를 독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는 집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등장은 그런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약화 또는 분산을 뜻하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한국의 문자가 되어 수많은 문학 작품을 양산하는 등 한국만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한 공문서나 남성들의 활동에서는 한자가 활용되었고, 훈민정음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여성들 위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자와 훈민정음의 이원적 사용 양상은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한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점점 한글이 대표적인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세종대왕 시기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 건국 후 한양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 세종대왕 즉위 이후에도 한글 창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

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며 갈등이 역사적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이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융성은 이런 갈등에서부터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려 말과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던 시기뿐 아니라 세종대왕 통치 시기도 많은 콘텐츠의 창작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양은 궁궐을 중심으로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재현되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드라마부터 볼까요? 대표적으로는 <뿌리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5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방영한 SBS 퓨전 사극 드라마로서 조선 초 세종 이도의 한글 창제와 그에게 대항하는 비밀 조직인 일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 2장 첫 구절에서 따온 것이며 드라마 안에서는 비밀 조직인 일본이 추구하는 세상, 즉 재상이 뿌리가 되는 국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극 중 시점은 셋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종 24~25년, 하나는 세종 26년, 마지막 하나는 세종 28년입니다. 모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되어 있죠. 보통 1443년은 훈민정음 창제 시기로, 1446년은 훈민정음 반포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의 시기가 <뿌리 깊은 나무>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훈민정음은 반포가 되었을까요? 사실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 25년을 창제 시기로 보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가 완성된 시기인 세종 28년 9월 상한을 새 문자를 반포한 시기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선조 문헌 기록상 <<훈민정음>>을 간행하여 반포했다는 내용은 단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광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죠. 오늘날 반포라는 용어는 최만리의 연문 사용 반대 상소문에 나타난 ‘광포’라는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반포’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반포 기념식을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포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글 반포설을 전면 부정하고 세종 25년 양력 1월을 한글 창제일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도전을 필두로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계원들을 암살하고, 훈민정음 창제 반대 운동에 나선 과격한 성균관 유생 박세명을 몰래 선동하며, 훈민정음 유포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광평대군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반포식에서 세종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양은 선과 악의 대결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세종대왕을 위시한 한글 창제를 완성하려는 세력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

으로 이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 창제의 이면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 국가와 신하를 중심으로 한 재상 국가라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볼까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로는 <나랏말싸미>가 있습니다. <나랏말싸미>는 2019년 7월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사극 영화입니다. 보통 세종 친제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하지만 <나랏말싸미>는 이 중 세종 신미 협찬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과 관련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한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보다 <나랏말싸미>에서의 한양은 더 심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도는 여전히 불교를 숭앙하는 여성 인물과 불교를 배척하는 남성 인물들의 갈등입니다. 여기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하자 한양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세종대왕을 옹호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신미라는 중을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조정에서 배척당하던 불교의 인물이 몰래 궁궐에 들어와 훈민정음 창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양의 상황이 좋지 않자 한양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교와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대왕을 매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나랏말싸미>의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글 창제도 완료되고 불교에 대한 국가의 인정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한글 창제를 중심에 두고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 펼쳐졌다면 <나랏말싸미>에서는 한글 창제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결과 갈등은 모두 한양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양은 지금 서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건국 과정에서부터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국 주체들의 엇갈리는 욕망과 지향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등장한 이른바 사림파 사람들은 조정이 있는 한양에서 물러나 지방에 있는 자신의 세거지로 거처를 옮긴 후 한양을 붉은 먼지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고 고요한 강호 자연에 머물며 성리학적 이치를 탐구하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한양은 정치적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성리학의 가르침이 정치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곳으로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한양은 조선의 도읍지로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런 만큼 혼탁한 곳으로도 인식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고문헌】

- 전통문화포털
- wikipedia
- SBS
- KMDB

6차시 오늘날의 한양

학습 목표

- 오늘날의 한양의 경계를 순성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오늘날에 남아있는 한양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의 한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기능하다가 일제 강점기 때 경성부로 이름을 바꿨고, 해방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주변의 경기도 지역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은 한양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궁궐과 한양의 경계를 이루었던 성벽과 성문을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궁궐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성벽은 역사적 기억을 남긴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대문 또한 그 주변에 독특한 상권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의 한양이라고 하면 보통 사대문 안을 가리키는데 서울 한양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 한양 도성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네 개의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데, 사대문 안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궁궐과 도시를 방위하기 위해 지은 도성이었는데 오늘날의 한양 지역을 이 도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양의 외곽부터 살펴볼까요? 한때는 서울 성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의 순환하며 산책하기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양 도성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을 순성 놀이라고 하며 조선 시대 당시 한성부 사람들의 여가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순성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점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재미로 각 대문 인근에 스탬프가 있으며 스탬프 투어 종이에 각 대문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완주 기념 배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왕산 구간입니다. 인왕산에서 서울 도심을 보면 사진과 같습니다. 인왕산 구간은 돈의문 터에서 인왕산 정상, 창의문에 이르는 길입니다. 가는 길 중간에 흥남파 가옥과 사직 터널 위를 통과하며 산행 코스가 시작됩니다. 외부 순성길을 통해서 산을 오르다가 인왕산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내부 순성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을 보기 위

해 일몰 시간을 고려해서 인왕산 구간을 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백악 구간입니다. 창의문부터 혜화문까지의 순성 구간으로, 북악산을 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악산, 청운대뿐 아니라 구간 대부분에서 서울 사대문 안의 근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방된 지 오래되지 않아 나무가 꽤 우거진 편이며 창의문 안내소-말바위 안내소 구간의 순성길은 탐방 시간과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행이 침투해 온 루트였기 때문에 국가 보안상 중요한 곳이라서 이런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40년 동안 민간인 통행 불가 지역이었던 이곳은 2007년 4월에 오픈되었는데 양 끝의 안내소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표찰을 빌려주며 반대편 안내소로 나갈 때 반납하면 됩니다. 2019년 4월 5일부터 탐방 시간이 확대 개방되었고, 동시에 탐방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표찰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낙산 구간은 혜화문 옆을 통과하는 창경궁로를 건너면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 성곽의 순성 구간 중 가장 완만하고 카페도 중간에 있어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 에게도 인기가 많은 구간입니다. 길게 연결된 도성에 비치는 조명이 상당히 독특하면서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낙산 공원 정상에서는 멋진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암문을 거쳐 내부 순성길을 통해 이화 벽화 마을로 진입할 수 있으며 계속 순성길을 따라 남쪽으로 걷다 보면 한양 도성 박물관, 서울 성곽 공원을 거쳐 동대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흥인지문 구간은 흥인지문, 곧 동대문이죠. 동대문을 거쳐 이간수문, 동대문 운동장 터에 세워진 DDP, 광희문을 연결합니다. 간선 도로 및 전차 도선이 이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놓였기 때문에 승례문-정동 지역과 더불어 한양 도성에서 가장 많이 파손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DDP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전시장 및 쇼핑몰입니다. 영국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2007년,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된 이후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2008년에 착공하여 6년 만인 2014년 3월에 개장했습니다. 건물 구역은 크게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어울림 광장,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본래 동대문 DDP보다 동대문 시장이 더 유명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개장한 동대문 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의 양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현대화된 복합 시장 단지로 발전했고 동대문길을 따라 다수의 패션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시작했습니다. 2002년 5월 23일에 동대문 패션 타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동대문 시장은 동대문 패션 타운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남산 구간은 장충체육관부터 백범 광장까지를 말하는데요. 경관이 좋은 전망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광희문에서 이어져서 서울 신라호텔, 국립 극장, 남산 서울 타워를 거쳐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 광장, 서울 힐튼호텔, 송례문까지 이르는 구간입니다. 남산에는 N서울 타워가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타워 전망대에서 한양 도성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송례문, 곧 남대문이죠. 이 남대문은 대한민국 국보 1호입니다. 가장 먼저 지정되었다는 뜻이죠. 이 남대문은 2008년 2월 10일에 방화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반쯤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복원 작업은 5년 뒤인 201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오늘날 사대문 안에는 조선 한성부 내에 위치하였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즉 덕수궁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묶어서 조선의 5대 궁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경복궁 경내에는 국립 민속 박물관이 있고, 근처에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공예 박물관,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이 있어서 서울의 과거와 오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도 있으며, 이곳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올리는 종묘 제례 또는 종묘 대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종묘 근처에는 종로의 수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양은 조선의 수도이면서 오늘날 서울의 전신이 된 곳입니다. 범위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서울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양의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 순성길을 돌며 한양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또 그 안을 거닐다 보면 현대화된 오늘날의 서울과 옛 모습을 간직한 조선의 한양이 함께 어울려 있는 오래된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 한양도성,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9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한양도성
- e뮤지엄

Lecture

2주차 조선 전기와 한양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6차시	오늘날의 한양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Hello. My name is Shin Ho-rim, and I am giving a lecture on the subject of "Early Chosŏn and Hanyang" and its relation to Seoul's history and cultural spaces. The topic of this lecture is primarily based on the country of Chosŏn, and more specifically, focuses on the early Chosŏn era, and the spatial background of "Hanyang".

Joseon is the name of the new state that was founded by its first monarch, Yi Sŏnggye, in 1392. Up until that poi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a state called Koryŏ which was established in 918. When we talk about Seoul in a historical context, we refer to it as Hanyang, because present-day Seoul starts in Hanyang of the Chosŏn dynasty.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history of Seoul begins with the establishment of Hanyang as capital during the Chosŏn era. Therefore, we will talk about Seoul by looking at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Hanyang.

In this regard, there is one point that needs clarification. That is, when did the early Chosŏn period end? Usually, the division of Chosŏn's historical periods are explained in one of the following two ways. One way is to divide Chosŏn history into early and late periods. In the history of Chosŏn, the Imjin War and the Manchu Invasion are called the "Yangnan" ("Twin Calamities"). The Imjin War was in 1592, the Manchu Invasion occurred in 1636. War brings enormous violence to the people living in an area, and after a war, the way of life and the order of the world that was previously in use collapses, resulting in new forms of life and worldviews. War brings about enormous historical

transformations. Therefore, the period up until the Pyŏngcha Horan in the 17th century is termed early Chosŏn, while the period from the 18th to the 19th century is termed late Chosŏn.

Alternatively, a more detailed method is to divide the Chosŏn history into 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This approach views the 15th and 16th centuries as the early period, the 17th century as the middle period, and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s the late periods of Chosŏn. Of course, even with these periodizations, wars serve as indicators of significant historical turning points. Looking at times of war as separate, independent historical moments presents differences.

In this session, we will employ the former perspective to examine the early Chosŏn period. Thus, in this session we will only cover the period up until the Imjin War. With "Early Chosŏn and Hanyang" as our theme, the topic of this lecture is, specifically, "The foundation of Chosŏn and Hanya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there was a state called Koryŏ. The capital of Koryŏ was Kae-gyŏng, which is in the present-day region of Kaesŏng. Hanyang was called Hanyangbu during the Koryŏ period, but it was also called Namgyŏng, which means "southern capital." In reality, it functioned as the capital at the end of the Koryŏ period, during the reigns of King U and King Kongyang. Therefore, when Chosŏn was founded, the Namgyŏng region was naturally adopted as the capital and, under the name of Hanyang, eventually became what is now Seoul. The reason why we are going to cover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in this session can be found here.

As the history of Chosŏn began, Hanyang established itself as the capital. Thus, in order to understand Seoul, it is necessary to have a prio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Chosŏn. How was Chosŏn founded, and what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Hanyang when it began, in earnest, to function as the capital?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need answering. If we want to talk about the founding of Chosŏn, we also need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Koryŏ, albeit briefly. Of course, it's difficult to summarize the entire history of a country all at once, but let's take a brief look at the key points.

Koryŏ was founded in 918 by Wang Kŏn. Wang Kŏn forme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powerful local families, who were the center of regional power, and continued to strengthen his royal authority. As time passed, these families increasingly developed into an hereditary aristocracy. They took control of central authority and started to establish their hereditary power by taking advantage of systems such as the "ŭmsŏ". The ŭmsŏ was an appointments system in which individuals could obtain government positions without taking civil service exams, such as the "kwagŏ". As such, unlike the factions who entered politics by default through the ŭmsŏ, there had been groups of people who obtained government positions through the kwagŏ. For the sake of convenience, they are called "Shinjinsain" (New Scholars). One can say they were a group of intellectuals who were newly emerging. They tried to increase their own power in opposition to the hereditary aristocracy, however, breaking the power of the hereditary aristocracy, who had already firmly established their power, was not an easy task.

Meanwhile, in 1170, the Musin Rebellion broke out. The Musin Rebellion was an incident in which a military faction revolted against the injustices of the civil class and seized power. This was the start of the so-called military regime. At this time, the civil class would have been comprised of the hereditary aristocracy. As it was difficult for the military officials to govern alone, the military regime began to politically protect and foster the newly emerging intellectuals who were opposed to the hereditary aristocracy. A kind of symbiotic relationship formed between them.

Howev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regime, Koryŏ did not reach a period of stability. In 1231, the Mongol invasion began and in 1361, there was another invasion by the Red Turban Army. Due to the constant invasion of foreign powers, Koryŏ's power began to decline, and it eventually came under the rule of the Won dynasty. While under the rule of the Won dynasty, another power emerged. Namely, the "Kwŏnmun Sejok" (powerful families) who seized control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time when Koryŏ became a vassal state under Won dynasty in the wake of the Mongol invasion, the Kwŏnmun powerful families expanded their power by showing

loyalty to the Won dynasty. All the names of the kings of the Koryŏ during this period included the word "ch'ung." As can be seen from the names of the 25th king to the 30th king of Koryŏ (Ch'ungnyŏl-wang, Ch'ungson-wang, Ch'ungsuk-wang, Ch'unghye-wang, Ch'ungmok-wang, and Ch'ungjŏng-wang), all of their names contained the word "Ch'ung". "Ch'ung" orients Koryŏ towards the Won dynasty, and is a humiliating part of its history.

When the Kwŏnmun families were in power, a force emerged to counter them. This group was called the "Shinheung Sadaebu". They used Neo-Confucianism as an ideological weapon to establish their political identity and began to accumulate power to counter the Kwŏnmun families. The Shinheung Sadaebu was the main force behind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The Shinheung Sadaebu established Chosŏn, proclaiming Yi Sŏnggye (T'aejo) as king, and began to create a new world based on their political weapon, Neo-Confucianism.

Originally, Buddhism provided the philosophical and religious foundation of Koryŏ. At this point, there was a philosophical transition from Buddhism to Neo-Confucianism.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ntry entails a massive transformation in various respects. Following the series of such changes can also help us understand Hanyang. The new establishment of Chosŏn-era Seoul as "Hanyang" differentiated the city from the Koryŏ-era Seoul, and symbolized a turning point and break with the past. Of course, it may have also served as a natural way to put a check on the incumbent power formerly established in Seoul. Here, Seoul literally refers to "capital city." "Seoul" originally meant the place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of a country was located. This term is now used to designate the capital city of Korea. It is said that Korea was the first and the last country in the world to directly name its capital city "Seoul".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the history of Koryŏ before the founding of Chosŏn. Koryŏ displayed a different character to Chosŏn, and diverged in every respect, from the location of its capital, to the ideology that held sway during that period. Whenever a new country is founded, indicating a new beginning, it needs to appear different, distinct from the existing country and, therefore,

not only the ideological basis, but the even the capital, even Seoul, needed to change. That new capital was none other than Hanyang. Hanyang symbolized a new beginning for Chosŏn, where the history of Seoul would begin in earnest.

【참고문헌】

- e뮤지엄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학습 목표

-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Before we talk about Chosŏn and Hanyang in more detail, let's take a look at some literary works that depict the situation in the late Koryŏ period.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Koryŏ period was still "The Era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However, just because it is 'poetry', does not mean that it's content is limited to the expression of emotions alon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poetry and literature that depicts the reality of the time. The first work we will look at is by the Sinjinsain (New Scholars). The Sinjinsain was a faction that opposed the ruling hereditary aristocracy. As a result, some of their poems also describe the lives of peasants.

Let's take a look at "At Posan Station" by Kim Kuk-gi. Kim Kuk-gi left behind several poems about rural areas and the peasant class. Unable to find immediate employment after passing the kwagŏ state examination, he spent about 10 years roaming the country, observing the lives of peasants. Even after entering government service, he frequently traveled and expressed in his poems the reality of life he directly observed. Although his poetry collection is not currently available, contains over 200 of his works are compiled in the "Tonggukyŏjisŭngnam".

"Deep valley village / Three or four houses with planted mulberry trees

The fisherman quietly sets his fishing line / While a child idly weaves a hunting net

Pinecones upon the hill scatter in the wind / As rain falls on flowers blooming on the mossy walls.

Besides tilling the fields and grinding the grains/ I envy the unhurried way you pass the time"

"At Posan Station" depicts rustic scenes and describes the lives of peasants therein. When reading the poem, one can feel the gentle simplicity of the scene, and the speaker's sighs of envy towards it. The poem is a point of intersection, depicting the dreams held by ordinary people for an unbound life in nature amidst the chaotic political reality. However,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speaker expresses envy not for their labor, such plowing fields or threshing rice, but for other aspects of their lives. This is characteristic of the Sinjinsain. They are present in the lives of peasants, but they do not directly partake in their labor. From a kind of onlooker's position, it observes the lives of the peasants.

Let's look at another poem, this time by Yi Gyu-bo. His poetry,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portrays a deeper reality compared to that of Kim Kuk-gi. From a young age he showed exceptional literary talent, and though he also had a record of repeatedly failing the kwagŏ exam, with the advent of the military regime, he gained fame and prestige under its protection. Let's take a look at Yi Gyu-bo's poem, "Speaking On Behalf of the Farmer"

Lying face down on the wet paddy field, weeding / How can this rough figure, covered in dirt, be that of a man?

Sons of kings and noblemen, do not despise me / For the peasants are the source of your wealth and glory

In the verdant fields, fresh grain grows / But already the officials are out collecting taxes

It's us peasants who work hard on the land to make them rich/ So why do they exploit us so ruthlessly?"

In this poem, we can see how the peasant-as-narrator expresses the emotions and anger of this class directly. This poem is impressive for the way in which it directly expresses the peasants' determined resistance and feelings of anger towards reality's contradictions. However,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Yi Gyu-bo's social status and clas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he was in the same boat as the peasants in their daily lives.

The appeal articulated in "Speaking on Behalf of the Farmer" stays at the level of demanding fair recognition for their function and their hard work. Of course, while this was quite a progressive idea for the time, in observing and act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easant perspective, Yi Gyu-bo can be said have occupied similar position to Kim Kuk-gi.

Now that we have seen the poetry of the Shinjin Sain, why don't we take a look at the poetry of the "Shinheung Sadaebu"? The first poem we will review is by Yi Gok. Yi Gok was the son of Yi Chasŏng of the Hansan region Hyangni class. While remaining in the Won dynasty, Yi Gok held official positions spanning across both Koryŏ and Won dynasties. He left behind a saying, 'If you are diligent, you will become a noble person, but if you are lazy, you will end up a lowly one. If you are diligent, you can attain wealth and prosperity, but if you are lazy, you will end up poor', which demonstrates the principles of the emerging scholar-official class who, unlike the Kwŏnmun Sejok (powerful families), could only enter central government on their own abilities and efforts. For Yi Gok, the Kwŏnmun Sejok were inevitably an object of criticism. Therefore, Yi Gok also left the following words: "Currently, our country's customs judge one's abilities and wisdom based on wealth and power, regard deference and loyalty as trivialities, and treat straightforward, reasoned argument as if it were the ravings of the town; and so it is obvious that the country has lost its way." Here we can note the rhetorical irony of the strict criticism of the Kwŏnmun Sejok, coming from the proud and ambitious Shinheung Sadaebu.

I will read for you now one of Yi Gok's poems entitled, "A Travel Poem Given to a Hansu-Ch'ŏngju Official".

Even as I travel ten or five li on the road / The masses of officials on horseback is a surprise

When I dismount and stand by the roadside / They pass by like shooting stars

Surely, I think to myself, the king is distributing blessings / bestowing favors upon the peasant

Some say that he calculates their pleas / and exploits the poor ordinary people

Some say that he takes the mountains for himself / dedicating it to the land-grabbers

I will buy a mountain and leave this world / and open a lattice window to let in the blue mountain light in

In the garden, I want to plant pine trees and bamboo. / And outside the door, some rice

Sitting under the deep shade of the trees / Or drinking the cold, clear spring water,

Each day I want to uncoil my delicate feelings / To not get tangled up in the affairs of the world

But, when even a single piece of land falls into greedy hands / How can a private abode be built anywhere?

And so to work in a busy government office/ means one cannot find peace throughout the year."

"This poem sheds light on the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between the large landowners and the tenant farmers in rural villages. The first half depicts the tragic state of the farmers who suffer from the harsh taxes and the appropriation of their land by the elites, while the latter half sings about the situation where, even if one retreats from the center of power and returns to the countryside to farm, not even a single piece of land is left, having gone into the hands of the powerful elites. The Shinheung Sadaebu class stood at the boundary of this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in between the large landowners and the peasant farmers. The dispossession of land by the ruling elites became a direct threat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landowners of the Shinheung Sadaebu. Therefore, by sympathizing with and sharing the

farmers' miserable situation, and expressing anger at ruling elites' abuses of power, they established their political and scholarly position. One more thing that needs to be noted here is that the position of the Shinheung Sadaebu was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easants. Therefore, because they we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lives of the peasants compared to the Shinjin Sain, they could see the world through their eyes.

The next poem we'll look at is "The Song of Dotolbam" by Yun Yōhyōng. Yun Yōhyōng is a unique figure about whom little is known, except that he held the ninth rank position in the civil service at Sōnggyun'gwan. Through his poetry, it can be surmised that he traveled around Kangwŏn Province and that he stayed at a temple in Yōnggwang, Cholla Province for a time, but it is only known that he was mainly active while not in office. Despite this lack in the historical record, Yun Yōhyōng's "Song of the Acorn Chestnut" is well known. One can say that this is because it reflects the lives of peasants well. Having directly experienced farm labor, he was able to feel the reality of peasant life more closely than just observing them. In his statement, "Since I have no excellent plan of benefit to the country, I throw away my books I learn from the farmer", we get a sense of Yun Yōhyōng's attitude towards life. When it was impossible to advance as a Sadaebu official, he was able to discover the place of a member of the small-medium land-owning class by stepping back and learning farming, and it is here that we can note the Sinheung Sadaebu's bureaucratic consciousness. The poem is a little lengthy, but let's read it slowly.

Acorn chestnut, acorn chestnut, though you're not a chestnut / Who named you thus?

Though you're more bitter than ixeris, darker than charcoal / In fighting off hunger, you're as good as a Solomon's Seal

Rural villagers with a bundles of dry rice / Go to hunt for acorn chestnuts when the the rooster crows

Ascending the steep cliff / They fight against the monkeys everyday, cutting down the arrowroot vines,

Even if they gather all day, it won't fill a basket / Their stomachs rumble as if their legs are bound together

The weather is cold, the sun sets, and they sleep in the empty valley / Boiling the valley's leaves in a fire made with pine twigs,

At night, their whole body is covered in frost and wet with dew / How sad the cries of men and women

Stopping by a country house for a moment, I questioned an old farmer / And the farmer looked at me carefully and spoke thus,

These days, powerful people take away the people's land / And create official documents by setting the boundaries of the mountain

As a single piece of land has many owners / They collect the rice tithes incessantly,

And when there's a bad harvest / On last year's threshing floor, only weeds are piled

Even if I scratch my flesh and beat my bones, there is nothing there / So how can the authorities collect their taxes?

Thousands of soldiers have fled / And only the old and frail are left protect their empty houses, upturned like a bell

I cannot bring myself to die like in ditch / So I leave the village and climb the mountain, to gather acorns and chestnuts"

Though unadorned and brief, these words were precise / As I listened, it was as though my heart would tear,

You saw it, no? Just a day's food at the official's house, worth ten thousand jeon / Five caldrons of delicious dishes spread out like stars

Even the servant is drunk, vomiting on the carriage's silk mat/ And the sated horse neighs loudly on its golden bit.

How could they know that all that good food/ Was blood from under the eyes of the old country folk?"

The first part depicts the terrible scene of men and women wandering around the mountain to pick up acorns. Even though what are called "dotolbam" (acorn chestnuts) are more bitter than sseumbagwi (Ixeris, Asteraceae), the poem explains why the people go to such great effort to collect them. The second part informs the reader, through the words of a farmer, that the Kwŏnmun Sejo powerful families are dispossessing the people's lands, persecuting the farmers and forcing them to pay taxes. In this scene, we are told why the people are foraging for acorns. Here, the poem details how the elderly and the weak have been left to fend for themselves after all the strong, young men have fled.

The third part expresses anger at the authorities. Earlier, I mentioned Yi Gyu-bo as an example of the Shinjin Sain. Yi Gyu-bo couldn't go beyond criticizing the unfair exploitation of the peasants and wrong perceptions held about them by the reckless and corrupt officials. However, by setting the Kwŏnmun Sejo as a class to be overthrown, and shaping this sentiment into poetry, he achieves a material exactitude. I think this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injin Sain and Shinheung Sadaebu. During Yun Yŏhyŏng's era, as the Shinheung Sadaebu class gradually consolidated into an independent political force, they created the prospect of a new political structure. Under this vision, the notion that the Kwŏnmun powerful families became the targets to be overthrown became even more clear.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contradictions of society, and embodying them, the Shinheung Sadaebu inherited the Shinjin Sain's perception of the peasant class as the subject of labor and production, but importantly, they linked their historical status and prospects to this class.

In this way, the Shinheung Sadaebu, who emerged as a new force at the end of the Koryŏ dynasty, manifested power by utilizing the Kwŏnmun Sejo as a concrete object of criticism. The appointment of General Ch'oe Yŏng, along with Yi Sŏnggye, the greatest military man of his time, cemented a force that would lead to the collapse of Koryŏ and the founding of Chosŏn. Yi Sŏnggye became King T'aejo of Chosŏn and would lead this new dynasty. Due to the significant support of the Shinheung Sadaebu in this process, Chosŏn

was a state with strong royal, as well as ministerial authority. Therefore, despite being a monarchy, there was always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royal and ministerial authority in the history of Chosŏn. "Hanyang" was the capital city of Chosŏn and stood at the center of such tensions and conflicts.

Thus, understanding this historical background is also an important guideline for understanding Hanyang in the early Chosŏn period. After the founding of Chosŏn by Yi Sŏnggye (T'aejo), the strengthening of the ministerial power centered around Chŏng Tojŏn, the Prince's Rebellion led by Yi Sŏnggye's son, Yi Pangwŏn (T'aejong), and all the events until the reign of King Sejong later called the Sejong the Great, took place in Hanyang.

【참고문헌】

- e뮤지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고전번역원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학습 목표

- 조선 전기 사대부의 문학을 통해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the lecture will deal with the subject of "The Major Events of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Hanyang". When a new nation is being established,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in addition to choosing a capital city.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new dynasty. Chosŏn was founded by an alliance of emerging elites (Shinheung Sadaebu), from the small and middle-sized landowning classes, armed with Neo-Confucian ideology, along with military factions led by Yi Sŏnggye. Yi Sŏnggye established the Chosŏn dynasty through the turnings of the 'dynastic cycle' and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new dynastic cycle was laid down by the emerging Shinheung Sadaebu class of the late Koryŏ period.

These theoretical foundations were also elaborated in various literary works, and these works were gathered together and collectively termed, "Akjang". Akjang refers to a kind of song of consecration that was sung during the royal ancestral rites at the court, and contained praise for the new kingdom and king, the aspirations of the new era and new heroes, as well as the power of the future monarchs. You can see their appearance in works such as "Akhak gwebeom", "Akchang-gasa", and "Si-yong Hyang-ak-bo", and it is known to have emerged in the early days of the Chosŏn dynasty,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disappearing after the reign of King Sŏngjong. Musically, it is known to be the origin of the Sijo, and is characterized by a form of 4 lines with 2 verses. In terms of content, most of them praised the founding of Chosŏn, and the ministers of the Chosŏn dynasty were the main audience.

At this point, we will examine the representative works of "Yurim-ga",

"Sindo-ga", and "Yongbiöch'önga". First, let's look at "Yurimga". "Yurim" refers to the emerging Shinheung Sadaebu nobility who based their ideology on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Let's take a look at the modern Korean version:

After five hundred years, the waters of the Huanghe river became clear

The wise king has raised the country up again, and all the people rejoice together as one

After five hundred years of the Koryö dynasty, the waters of the Gisu river became clear

The Holy King has risen the country again, and every crop grows in abundance

A-kung-cha-rak, a-kung-cha-rak, gung-cha-rak-a

Let's go to the Gisu to bathe, go to Muwu and enjoy the wind, and come back singing"

The last verse is taken from a passage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When Confucius asked his disciples about their intentions, all of them talked about politics but when named Jeungsuk, replied, "I want to take off my spring clothes and go to Gisu to take a bath with my friends and children, then go up to Muwu and sing and come back," Confucius praised him for this response. Though talking about political thing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ong about being content in nature in way that is disconnected from politics. The refrain expressed as "엽" in the middle not only preserves the rhythm but also includes the meaning in Hanja. It can be considered a literary and musical form of its own.

"Yurimga" is a song about the ideals of Yurim themselves. It strongly reflects the expectation of achieving a peaceful administration through the great achievement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hosön dynasty. The ambiguous expression in the refrain indicates a pursuit of a life of "Ahn Bin-nak-do". "Ahn Bin-nak-do" refers to a life where one enjoys the path of a peaceful life while living in poverty. meaning a life lived in nature without a

desire for material wealth. Therefore, if you read the "Yurimga," it tells us that "a life lived in the politics of reality is the life of Ahn Bin-nak-do in nature." The Confucianist ideals pursued by Yurim understand the world as starting in nature, and within this is the life of Ahn Bin-nak-do, which in turn accords with real politics – all of which indicates an era of tremendous peace. Of course, we do not know how they actually lived, but through the "Yurimga," we can see how proud the Yurim people were of the Chosŏn dynasty at that time. This is because it says that Chosŏn is the country where Neo-Confucian ideals are realized.

The second Akjang work we will look at is the "Shindoga". As the title suggests, it is a song about the new capital city, which is none other than Hanyang. The "Shindoga" is recognized as the work of Jeong Do-jeon.

In the old days, it was the village of Yangju

A great location for a new capital city!

Blessed king, who has bequeathed us this country, has achieved peace and prosperity.

This is a capital, indeed! This scenic sight, truly, a capital city!

May our king enjoy a ten thousand year-long reign, and bring joy to all the people

Ah-eu, da-long da-li

In front, the Han River, behind, Samgaksan Mountain

Amidst this blessed, majestic land, may we enjoy eternal life."

The first and second verses give praise to the new capital. In the third verse, the virtues of T'aejo Yi Sŏnggye are acclaimed. Then, in the fourth and fifth verses, both the new capital and King Taejo's virtues are praised again. "Ah-eu, da-long da-li" is a vestige of Koryŏsong, and can be considered as a type of lingering sound. One can say that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song was to be enjoyed as music. In the sixth verse, the new capital city is praised again, and the song ends with a tribute to the virtues of Yi Sŏnggye.

In highlighting the new capital's location, its status as capital, and its geomantic characteristics, "Shindoga" praises the new city, and its repetitive structure also intersperses admiration for the virtues of Yi Sŏnggye throughout the song. In addition, in this song, the composition sets up the idea that the founding of Chosŏn is also the happiness of the people. We can see this in the line, "May our king enjoy a ten thousand year-long reign, and bring joy to all the people". So, "Shindoga" creates the concept that the blessing of Taejo is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which is also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s well as its natural beauty. To be specific, Hanyang, which is where they are located, is a place of nature and a place where the people can be happy. "Shindoga" is a song that sings about the fullness of politics, nature, and reality through Hanyang as its main trope.

Finally, let's look at <Yongbiŏch'ŏnga.> It is the founding myth and epic of Chosŏn, completed in the 27th year of the reign of Sejong, 1445. "Yongbiŏch'ŏnga" is the first document recorded in Hunminjeongeum, and it is also Korea's first recorded long narrative poem. The title of the song is also meaningful. "Yongbi" means "the dragon rises," indicating the hero's rise and prosperity. "Och'ŏn" means "to meet the heavens," emphasizing that the outcome of adapting to the heavens led to the founding of Chosŏn. So, "Yongbiŏch'ŏn" means the dragon to the heavens and emulates its ways, and "Yongbiŏch'ŏnga," then, can be seen as a song that flies up like a dragon to fulfill the will of the heavens. The dragon symbolizes power and authority, meaning the emperor. As it tells the story of kings being born and establishing their country, "Yongbiŏch'ŏnga" is also called the founding myth of Chosŏn.

There may have existed various reasons for creating "Yongbiŏch'ŏnga," but the one we know of is that it was created to restore public opinion by emphasizing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and for 'kwŏn'gye'—counsel for the future kings. 'Kwŏn'gye' is counsel to preemptively prevent wrongdoings. The external motivation for creating "Yongbiŏch'ŏnga" is known to be for promoting the use of Hunminjeongeum (the original name of the Korean alphabet), and to grant dignity to the king.

"Yongbiöch'ōnga" is quite lengthy, consisting of a total of 125 stanzas. The first two stanzas are a narrative that clarifies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It is called "Kaeguksong" (Song of the Nation's Birth). Then, stanzas 3 to 109 consist of the main content, prais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six reigns of the Chosŏn dynasty while comparing them to the ancient Chinese dynasties. This section is called "Sajökch'an" (Praise of Historical Records). The six reigns refer to Mokjo, Ikjo, Dojo, Hwanjo, Taejo, and Taejong. Taejo is the founder of Chosŏn, Yi Sŏnggye, and Taejong is his son, Yi Pangwŏn. King Sejong, who commissioned the creation of "Yongbiöch'ōnga," was the son of Yi Pangwŏn. Therefore, the six reigns refer to Sejong's six ancestors, including his sixth great-grandfather. Finally, the sections 110–125 end with kwŏn'gye, or counsel, for the succeeding kings. This is known as the "Kyewanghun" section. First, shall we take a look at the modern translation of the narrative?

"As the six dragons from the east soar, every act they perform is blessed by heaven."

The "six dragons" emphasize the role played by the six generations of the Chosŏn dynasty's founding fathers. The "blessing from heaven" signifies that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was a divine mandate. "The deeply rooted tree does not sway in the wind, but bears beautiful flowers and abundant fruit. The deep well does not dry up even in a drought, and rises up and reaches the sea by itself." The "deeply rooted tree" and the "deep well" symbolize the eternal nature of Chosŏn. These lines can be seen to pray for the continuity of Chosŏn which was founded according to the will of heaven and through the commitment of the six kings.

Let's look at the third page only of the "Yongbiöch'ōnga" main text. The modern translation is as follows:

"Long ago, the King of the Zhou dynasty lived in Binggok and conducted his business there. Our ancestor lived in Kyŏnghŭng and established his royal duties."

The first sentence is about China's history, and the second is about Chosŏn.

Where is Binggok? Hou Ji, the founder of the Zhou dynasty, had big ambitions from an early age, and when he grew up and took up farming, the people followed his example. Gongyu, the descendant of Hou Ji, who lived near the land of Yungjök, rose up to his ancestral duty and established his kingdom in Binggok. The situation in Chosŏn was as follows: the first monarch of the Chosŏn dynasty, King Taejo, lived in Chŏnju. However, when he had a falling out with his officials, he moved to Samch'ök and later to Tökwŏn-bu in Hamgil-do, with about 170 followers. After making his name in the Won dynasty, he was able to establish himself as the king in Kyŏnghŭng, he people of the Northeast followed him too. This is the source of the legitimacy of the Chosŏn dynasty, which was established by King Taejo. It was an attempt to gain the legitimacy of the founding of Chosŏn, by comparing it with Chinese history. During the medieval period, China was a dominant power, so comparing the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was a way to show that Chosŏn was no different from China.

Lastly, shall we look at chapter 125? Let's examine the modern Korean translation. "In the ancient times, a noble land was built north of the Han River, which was predestined long before, and a dynasty was established by heaven's will. Even if they are the descendants of a great king, they must respect heaven and diligently serve the people to make it stronger. O kings, please listen. When you go hunting in the field, will you only rely on the merits of your ancestors?"

The verse "a noble land was built north of the Han River, which was predestined long before, and a dynasty was established by heaven's will" shows

that the current Chosŏn is virtuous and has received the blessings of heaven. And by saying "They must respect heaven and diligently serve the people to make it even stronger," It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the king's moral authority. It means to lead a thousand people continuously, one must honor the heavens and serve the people. The saying 'hunting in the rain' is a Chinese proverb. It refers to the story of King Taegang who, relying solely on the virtue of Lady Uwang, became obsessed with hunting. This story

illustrates how a king who becomes complacent and relies solely on his advisors can lead his country to ruin.

Thus, 'Yongbiöch'önga' is fundamentally composed of passages legitimizing the founding of the Chosŏn dynasty and counsel for future kings. When read in its entirety, an interesting point can be discovered. That is, it depicts Taejo Yi Sönggye as a moral giant and a guardian of justice, despite being a military leader without a noble background. Another point emphasized in 'Yongbiöch'önga' is that the new country of Chosŏn is different from Koryŏ. In the text, the Koryŏ kings, Uwang and Chawang, are depicted as weak and barbaric. By idealizing the founder of the dynasty and disparaging the previous country of Koryŏ, it can be seen as a strategy to elevate the status of Chosŏn.

'Yongbiöch'önga' is also used in modern times with a different meaning. One of the 101 questions that high school students asked their Korean language teacher in 2013 was: Why do we say that those who bow to authority sing Yongbiöch'önga?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meticulous research and writing strategies to secure the sense of tradition, legitimacy and dutifulness of the founding of the dynasty can be found in the "Yongbiöch'önga". Therefore, when talking about the "Yongbiöch'önga", there is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why people flatter, rather than simply connecting the two.

If one thinks carefully, there are also songs with a similar character to "Yongbiöch'önga" in modern society. The so-called "könjön gayo" (healthy songs) that emerged in the early 1980s can be seen as a unique, and coercive, institution that the government impose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ocial purification in the 5th Republic. In 1983, it was produced in an omnibus format, together with the Korea Broadcasting Corporation, with the grand intention of enhancing people's sense of ownership. We can cite the songs "Ah! Daehanminguk" by singer Chöng Su-ra and "Seoul" by singer Yi Yong as representative examples. As we are discussing the capital city of Hanyang, shall we take a moment to examine the lyrics of "Seoul"?

Let's plant an apple tree in Jongno

Dream on the road and walk away
Let's plant persimmon trees in Euljiro
When the persimmons are ripe, the love is ripe
Ah! Our Seoul! Our Seoul
Every street is full of blue dreams
I will love beautiful Seoul
Let's have all kinds of birds come to every building
Listen to the chirping of the chirping of the chirping
Let's make pretty flowers bloom on the street
Like flowers, love will bloom
Ah! Our Seoul! Our Seoul
Every street is full of blue dreams
I will love beautiful Seoul

What do you think? Are there any similarities with Chŏng Tojŏn's "Sindo-ga"? We can also observe that both the past and present express a desir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connection with Hanyang/Seoul.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벅스뮤직
- 전통문화포털
- 한국관광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e뮤지엄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 건국을 다룬 사극 드라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If one just looks at the 'akjang' (lyrics of Korean court music), it seems as if the Chosŏn state, and its capital Hanyang, as well as the king and the literati, who were the main agents of its founding, enjoyed a historically harmonious and peaceful atmosphere during the early Chosŏn period. However, the actual course of history did not flow so peacefully. One noteworthy event in this regard was the Princes' Revolt. In 1392, when Chosŏn was established, founder T'aejo Yi Sŏnggye was already in his late 50s. As a result, the issue of succession arose. Eventually, in order to eliminate Yi Pangsŏk and Chŏng Dojŏn's faction, Yi Pangwŏn led a rebellion. Subsequently, after King Chŏngjong's reign, Yi Pangwŏn ascended to the throne as King T'aejong. The Princes' Revolt occurred in 1398, just six years after the founding of Chosŏn. Contrary to the peace and tranquility described in the akjang works, it is evident that the authority of the Chosŏn dynasty had not yet stabiliz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 through a kind of dynastic cycle, Hanyang was stained with blood. Perhaps that's why this period would later be used as material for historical dramas.

Historical dramas, or "sagŭk," are productions, such as TV dramas, movies, or plays, that creatively depict specific historical periods. In Korea, they generally refer to TV historical dramas. Among these different forms of historical dramas, traditional sagŭk tries to closely reproduce historical events based on available historical materials, and as such, refrains from fictional embellishments and modern sensibilities as much as possible. A notable example is the drama "Tears of the Dragon." "Tears of the Dragon" was a weekend historical drama that aired on KBS from November 24, 1996, to May

31, 1998. The drama is set between 1388 and 1422, spanning 34 years in total, from the late Koryŏ period to the founding of Chosŏn, with Hanyang as the main stage. It was a monumental work that firmly established the status of KBS dramas, with a 1 billion won budget for costume production alone and a total production cost of 16 billion won. For this one work, the total cast numbered 7,950 actors, and an astounding 50,000 extras were also involved. Such a scale is larger than most movies.

In particular, "Tears of the Dragon" hold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historical drama to properly utilize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Chosŏn Wangjo Sillyok").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were first fully translated in 1993, but the enormity of these volumes made them difficult to access initially. However, in 199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were released on CD-ROM, making it easy to search and find the sections as needed. This allowed scriptwriters to fully utilize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when writing scripts for historical dramas. As a result, historical events like the Wihwado Retreat and the Princes' Revolt were depicted quite realistically. Representations of the Wihwado Retreat of 1388, in which Yi Sŏnggye, who had set out to attack the Ming dynasty, only to return to Koryŏ depose King U of Koryŏ and seize power, portray the ambitious aspects of Yi Sŏnggye and Yi Pangwŏn, while depictions of the Prince's Revolt, portray human emotions and actions, even amidst the bloody scenes.

In 'The Tears of the Dragon,' T'aejong played a significant role, but there was also a historical drama that focused on Yi Pangwŏn. Namely, 'T'aejong Yi Pangwŏn.' This, KBS's 33rd "Daeha" (annual major) historical drama, consisted of a total of 32 episodes and aired from December 11, 2021, to May 1, 2022. It featured the third king of Chosŏn, T'aejong, as the protagonist, and primarily focused on his efforts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newly established Chosŏn state. The drama depicts the period from the end of Koryŏ, through to the founding of Chosŏn, and the process of Yi Pangwŏn ascending to the throne after the events of the princes' rebellion, eventually culminating in his death. Although these events were already covered in 'The Tears of the Dragon,' this work can be seen as a reinterpretation from Yi Pangwŏn's perspective.

If 'Taejong Yi Pangwŏn' is a historical drama of the early Chosŏn period drawn from the point of view of Yi Pangwŏn, the historical drama 'Chŏng Dojŏn' offered a different perspective. Broadcast from January 4, 2014, to June 29, 2014, the KBS 30th "Daeha" historical drama consisted of a total of 50 episodes. Centered around Chŏng Dojŏn in his middle-age, it is set in the turbulent period from 1374 to 1398, namely from the end of Koryŏ and the last days of King Gongmin's reign, to the beginning of Chosŏn and Chŏng Dojŏn's demise in the first Prince's Rebellion after the conflict with Yi Pangwŏn. Looking at its description, it appears to be a historical drama, but it focuses on politics. 'Chŏng Dojŏn' is a story of comrades who came together to reform a turbulent world, and the conflict of opinions among them, conflicts that would eventually lead to arguments, betrayals, and murder. Unlike 'Tears of the Dragon', which started with the split between the hardline faction headed by Chŏng Dojŏn, following the Wiwhado Retreat and the ensuing dethronement of King U and King Chang, and the moderate faction represented by Chŏng Mong-ju, 'Chŏng Dojŏn' shows how close the two forces were before splitting, and then focuses on the subsequent split, with each faction's attempt to differentiate itself. Depending on whose perspective you look at history from, dramatic portrayals can vary.

There is also a drama with a completely different feel, namely 'Six Flying Dragons'. 'Six Flying Dragons' was a special SBS historical drama celebrating the 25th anniversary of SBS, which aired from October 5, 2015, to March 22, 2016. The idea of the project was as follows. 'Six Flying Dragons' portrays the country of Koryŏ as a great evil and tells the story of six characters who rise to destroy Koryŏ. The biggest feature of 'Six Flying Dragons' is that it is a fusion historical drama, not a traditional historical drama. Originally, in the "Yongbiŏchŏnga," the six dragons refer to the six founding ancestors of Chosŏn, but the premise of this drama is completely different. The drama attracted the public's attention, but several problems were raised regarding its historical authenticity. These problems were inevitable as the historical story was told with a modern sensibility. However,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process of founding Chosŏn was portrayed with a completely different sense from previous historical dramas. One can also say that it was a work that

showed how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the space of Hanyang, could be represented differently.

【참고문헌】

- 동아일보
- KBS
- SBS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학습 목표

-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세종대왕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The topic of today's lecture is "King Sejong of the early Chosŏn dynasty and Hangul." When the Chosŏn Dynasty was founded, there were high hopes among the founding members, but the real history paints a different picture. This period was such a fascinating one that many historical dramas have been set in the early Chosŏn era. However, the era of King Sejong, who succeeded King T'aejong, has also been dramatically re-enacted in modern times. By the time of King T'aejong, the royal authority of Chosŏn had become quite stable. King Sejong, who ascended to the throne, is also known as a king who brought about a brilliant culture in this stable environment.

King Sejong was the 4th king of the Chosŏn Dynasty. His posthumous title is Sejong, his temple name was Janghŏn Yŏngmun Yemu Insŏng Myŏnghyo the Great, his birth name was Yi Do, his courtesy name was Wonjŏng, and his childhood name was Makdong. King Sejong was born in 1397, five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Chosŏn Dynasty in 1392. In a way, he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Chosŏn king to be born as a Chosŏn native, unlike T'aejo, Jŏngjong, and T'aejong, who were from Koryŏ. During his 32-year reign, King Sejong left numerous achievements and is praised as the most accomplished king not only in Chosŏn history but also Korean history as a whole. He is one of only two rulers with the popular title of "the Great", alongside Gwanggaeto the Great, and is often selected as one of the greatest figures in Korean history, together with Admiral Yi Sunsin Chungmugong.

King Sejong's creation, "Hunminjŏngum", is now used as the official scrip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northern border established during King Sejong's era remains the border of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day. As such, King Sejong's reig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lture and lives of modern Koreans, making him one of Korea's most respected figures along with Admiral Yi Sunsin. King Sejong also had a strong interest in science, leading to the invention of sundials, water clocks, rain gauges, and celestial globes during his time.

Among his achievements, the most notable is undoubtedly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Hunminjeongeum, created in 1443, is the name of the script developed by Sejong, which soon became synonymous with Hangeul. There is also the "Hunminjeongeum" document containing the preface, list of characters and usage rules written by Sejong, and the "Hunminjeongeum" book which provides a commentary. So, again, there are two versions of the "Hunminjeongeum" book: the "Hunminjeongeum" which provides examples and the "Hunminjeongeum" which provides an explanatory commentary. The "Hunminjeongeum" book of examples has both a Hanmun edition and a version translated and annotated in Korean. Shall we take a look at the records related to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The records show that the compilation of "Yongbieocheonga" ("Songs of the Dragons Flying to Heaven") was ordered in 1442. "Yongbieocheonga" was a work of mythological stories related to Chosŏn's founding and was written in Hunminjeongeum. Then, in 1443, the 28 characters of Hangeul were finally created. It is often said that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took place in 1443, specifically in December of that year.

However, not everyone welcomed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Court officials like Choi Man-ri submitted opposition petitions in 1444. Nevertheless, King Sejong persisted, completing the book "Hunminjeongeum" in September 1446 and publishing several books. So, why did King Sejong think it was necessary to create Hunminjeongeum? The completion of Hunminjeongeum signifies the establishment of a unique writing system for the Korean language. Before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there was no choice but to use Chinese Hanja characters, or Idu, to write in Korean, which resulted in a mismatch between Korean expressions and written characters, limiting the ability to fully convey one's thoughts and feelings. During the Chosŏn Dynasty, Hanja was extremely

difficult to access for anyone other than the sadaebu (nobility), making it nearly impossible for common people to engage in written communication. In this context, the creation of Hunminjŏngŭm opened up the opportunity for ordinary people to participate in literate society. This is a crucial point.

The origin of the word "literature" lies in "literacy." Literacy refers to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Only a small group of people possessed this ability. Thus, the emergence of a writing system accessible to all people led to the weakening, or dispersion, of power that this small, literate group held. Of course, that doesn't mean that Chinese characters are not used. Chinese characters were still used in important official documents and men's activities, and Hunminjeongeum was mainly used by low-class people and women. The dual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Hunminjeongeum continued to some extent until the 20th century, but with the emergence of the term "Hangul," Hangeul gradually began to be used as a representative character.

Shall we go back to the reign of King Sejong? Even after King Sejong's ascension to the throne, when things were thought to have somewhat stabilized in Hanyang after the founding of Chosŏn, conflicts surrounding the creation of Hangul were still occurring. Questions about what kind of nation Chosŏn should become had not converged into one idea, and in the process, incidents related to the creation of Hunminjŏngŭm emerged, and conflicts came to the surface of history. While King Sejong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gures in Korean history, the cultural integration of that era could only arise from such conflicts.

As a result, not only the late Koryŏ period and the founding of Chosŏn, but also the reign of King Sejong became the subject of many creative works. The Hanyang of that era, centered around the royal palace, began to be recreated in various dramas and movies.

Shall we start with dramas? A notable example is "Deep Rooted Tree". Airing from October 5, 2011, to December 22, 2011, this SBS fusion historical drama deals with the story of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ul in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a secret organization called Milbon opposing him. The title,

"Deep Rooted Tree", comes from the first verse of the second chapter of "Yongbiŏchŏnga", and in the drama, it means the world pursued by the secret organization Milbon, in other words, a nation where the nobility becomes the root.

The action of "Deep Rooted Tree" takes place in three key historical moments. The first is the 24th–25th year of Sejong's reign, the second is the 26th year of Sejong's reign, and the last one is the 28th year of Sejong's reign. All of them are related to the creation of Hunminjŏngŭm. Usually, 1443 is known as the year of Hunminjŏngŭm's creation, while 1446 is known as the year of its dissemination. The time of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Hunminjŏngŭm is the setting for "Deep Rooted Tree."

However, was Hunminjŏngŭm actually disseminated? In reality, considering the 28th year of Sejong's reign, when the "Hunminjŏngŭm" commentary was completed, as the time the new script was disseminated, rather than the 25th year of Sejong's reign, when the new script was created, raises various problems. In th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there is not a single place where it is mentioned that "Hunminjŏngŭm" was published and disseminated. However, the word "gwangpo" can be found in the official document submitted by Choi Man-ri. The term "dissemination" used today is an expansion of the meaning of the word "gwangpo" found in Choi Man-ri's document, in which he opposes the use of Hunminjŏngŭm, which was interpreted as meaning "dissemination." This term was established, in part, because the Chosŏn Language Association formalized the Hunminjŏngŭm Dissemination Commemoration Ceremony, making it difficult to avoid using the term "dissemination." In North Korea, the dissemination of Hangul is completely denied, and they commemorate January of the 25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as marking the creation of Hangul.

Milbon was an organization led by Chŏng Dojŏn that aimed to make Chosŏn a country ruled by its officials. Milbon assassinates the secret agents who were working secretly for the creation of Hunminjŏngŭm, secretly incites the radical Sungkyunkwan student Pak Semyŏng who opposed the creation of Hunminjŏngŭm, and even kills Gwangpyŏng Daegun, King Sejong's son, who

was secretly working for the distribution of Hunminjeongeum. They also plot to assassinate King Sejong during the Hunminjeongeum dissemination ceremony. In a sense, Hanyang in "Deep Rooted Tree" is a space where the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unfolds. On one side are the forces trying to complete the creation of Hangeul for King Sejong, and on the other, those trying to restrain them, primarily Milbon. And behind the creation of Hangeul, you can see the clash of different ideologies: a monarchy centered on the king versus a high-ranking official-centered state focusing on the subjects.

Shall we move on to a movie? One movie that deals with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eul is "The King's Letters." "The King's Letters" is a South Korean historical film released in July 2019. Usually, the theory that King Sejong created Hangeul himself is considered the most plausible, but 'The King's Letters' is based on the theory that King Sejong collaborated with a monk named Shinmi. Therefore, the work received a lot of criticism for being a distortion of history. However, the point we will focus on is related to Hanyang. The situation of Hanyang in "The King's Letters" is more serious than in "Deep Rooted Tree". First of all, the basic structure is the conflict between a female character who still worships Buddhism and the male characters who reject Buddhism. When King Sejong tries to create the Korean alphabet, Hanyang becomes mired in chaos.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were hardly any forces supporting King Sejong. At this time, King Sejong meets a monk named Shinmi. From then on, a Buddhist figure who was expelled from the court secretly enters the palace and starts creating the Korean alphabet. As the situation in Hanyang worsens, they also proceed to work outside of Hanyang. The composition of 'The King's Letters' brings together Buddhism, unwelcome in Hanyang, and the creation of Hangeul, through the figure of King Sejong.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e creation of Hangeul is completed, and the movie ends with the state's recognition of Buddhism as somewhat secured.

While 'The Deep Rooted Tree' centered on the creation of Hangeul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royal authority and ministerial power, In 'The King's Letters', it appears that the conflict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unfolds around the creation of Hangeul. And such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re all concentrated in Hanyang. What do you think? Although Hanyang can be considered the precursor to modern-day Seoul, it can also be seen as a space where, from the founding of Chosŏn to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conflicting desires and orientations of numerous entities have gathered. Therefore, the so-called Sarim literati, who emerged after the 16th century, withdrew from Hanyang, where the royal court was located, describing Hanyang as a place where red dust rises, and moved to their residences in the provinces. In contrast to the Sarim, who stayed in the clean and quiet natural surroundings of the river and lake, exploring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Hanyang was perceived as a place where political intrigues were rampant and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could not be realized politically. Hanyang became the center of a new era as the capital of Chosŏn, but it can be concluded that it was also recognized as a somewhat chaotic place.

【참고문헌】

- 전통문화포털
- wikipedia
- SBS
- KMDB

6차시 오늘날의 한양

학습 목표

- 오늘날의 한양의 경계를 순성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오늘날에 남아있는 한양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our lecture will be on the topic of "The Hanyang of Today." Hanyang served as the capital of Chosŏn, and its name was changed to Gyeongseongb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liberation, it becam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bsorbed the surrounding Gyeonggi Province areas. So, today's Seoul has a much larger area than Hanyang. To find traces of Hanyang in Seoul, one should explore all the notable palaces, city walls, and gates that formed the boundary of Hanyang. The palaces have become popular tourist attraction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and the city walls that preserve historical memories are used as walking paths. The Four Great Gates have seen unique commercial districts form around them, continuing to the present day.

First of all, when we talk about Hanyang in the present day, it usually refers to the area within the Four Great Gates, which can be called Seoul Hanyang Fortress. Seoul Hanyang Fortress refers to the area located within the Dongdaemun, Seodaemun, Namdaemun, and Bukdaemun gates. It is also called "Sadaemun An" (the area within the Four Great Gates). T'aejo Yi Sŏnggye founded Chosŏn and built the fortress to defend the palaces and the city. We can explore the Hanyang of today through this fortress.

Shall we take a look at the outskirts of Hanyang? It was once called the Seoul City Wall. This place is known to be excellent for walking around downtown Seoul. In the past, walking along the Hanyang Fortress and appreciat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was called the "sunsong noli" ("wandering the circuit around the fortress") and it was one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people of Hansŏngbu during the Chosŏn Dynasty. So it is also called the Hanyang Fortress Circuit Trail.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this place is increasing, and it is establishing itself as a notable tourist course. For a little fun, there are stamps near each of the gates. And if you stamp all the gates on the stamp tour paper, you will receive a completion commemorative badge.

First is the Inwangsan section. The view of downtown Seoul from Inwangsan is as shown in the photo. The Inwangsan section is the path from the ruins of Donuimun Gate to the summit of Inwangsan and Changui Gate. On the way, the trail starts by passing through the Hong Nanpa House and crossing the top of Sajik Tunnel. When climbing the mountain using the outer circuit trail, you can enter the inner circuit trail as you approach the summit of Inwangsan. People also plan their visit to the Inwangsan section around sunset to see the night view of downtown Seoul.

Next is the Baekak section. This is the circuit section from Changui Gate to Hyehwa Gate, characterized by passing through Bukaksan. You can see not only Bukaksan and Chŏngundae, but also the beautiful scenery within the Four Great Gates of Seoul from most parts of the section. Since it hasn't been open for a long time, the trees are quite overgrown, and the circuit trail between Changui Gate Information Center and Malbawi Information Center has limited visiting hours and access. In 1968, this route was infiltrated by Kim Shinjo and his party, making it a place of national security importance, which led to these restrictions. This area, which was off-limits to civilians for 40 years after the incident, opened in April 2007. Access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information centers at both ends. By showing your ID and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m, they lend you a pass, which you return when you exit through the opposite information center. From April 5, 2019, the visiting hours were extended, and at the same time, the visiting procedure was simplified, so they lend you a pass directly without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You can enter the Naksan section directly by crossing Changgyeonggung-ro, which passes next to Hyehwa Gate. The Hanyang Fortress Wall section with the gentlest slope and a cafe in the middle is popular among both locals and

foreigners. The lighting that lights up the long fortress wall creates a unique and romantic atmosphere. From the top of Naksan Park, you can enjoy a stunning view of the cityscape. After passing through Ammun, you can enter Ihwa Mural Village through the inner wall path, and if you continue to follow the wall path south, you can reach Hanyang Fortress Museum, Seoul City Wall Park, and Dongdaemun.

The Heunginjimun section features Heunginjimun, also known as Dongdaemun. Dongdaemun connects to Igansumun, the site of the former Dongdaemun Stadium where the DDP was built, and Gwanghuimun. Main roads and tram lines were put in pla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king this one of the most damaged areas in the Hanyang Fortress along with Sungnyemun–Jungdong. Dongdaemun DDP, a convention center and shopping mall, is one of Seoul's landmarks and is located in Jung-gu, Seoul. Designed by British architect Zaha Hadid, it became a hot topic. After the demolition of Dongdaemun Stadium in 2007, it was built as part of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stadium site. Construction started in 2008, and it opened six years later in March 2014. The complex is divided into four major sections: the Learning Center, Living Center, Meeting Plaza, and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Originally, Dongdaemun Market was more famous than Dongdaemun DDP. The first modern market in Korea, Dongdaemun Market is known as one of Seoul's two major markets along with Namdaemun Market. In the 1990s, it evolved into a modern, complex market with numerous fashion shopping centers along Dongdaemun Street. On May 23, 2002, it was designated as Dongdaemun Fashion Town Special Tourism Zone, and the market was renamed Dongdaemun Fashion Town. It is also famous for being a place where lights never go out, from dawn until late at night.

The Namsan section refers to the area from Jangchung Gymnasium to Baekbeom Plaza, where there are several scenic viewpoints. Starting from Gwanghuimun, the section goes through Seoul Shilla Hotel, the National Theater, Namsan Seoul Tower, Ahn Jung-geun Memorial Hall, Baekbeom Plaza, Seoul Hilton Hotel, and finally to Sungnyemun. Namsan has the N Seoul

Tower, so on a clear day, you can enjoy a panoramic view of Hanyang Fortress from the tower's observatory. Sungnyemun, also known as Namdaemun, i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1 of South Korea, meaning it was the first to be designated. On February 10, 2008, a massive fire broke out due to arson, causing the gate to partially collapse. Fortunately, the restoration was completed in 2013, and it remains a representative symbol of Seoul.

Today, within the four main gates, the Five Grand Palaces of Chosŏn still remain: Gyeongbokgung,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Gyeonghuigung, and Deoksugung, also known as Gyeongungung. These are collectively called the Five Grand Palaces of Chosŏn. The National Folk Museum is located within the grounds of Gyeongbokgung, and nearby ar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Craft Art, Gwanghwamun Plaza,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History. There are many spaces where you can experience both the past and present of Seoul, making it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In addition, there is Jongmyo, which houses the ancestral tablets of the kings, queens, and posthumously honored kings and queens of the Chosŏn Dynasty. The ancestral rites of Jongmyo Jerye, or Jongmyo Daeje, are still performed here to this day. The area near Jongmyo has many spaces where you can enjoy the diverse culture of Jongno, making it a popular area for people to visit.

In this way, Hanyang was the capital of Chosŏn and the predecessor of today's Seoul. Although its scope has changed significantly, traces of Hanyang can still be found while walking through Seoul. As you walk along Hanyang Fortress Wall Trail, looking inside and outside Hanyang, you will be able to see where modern Seoul and the old Chosŏn Hanyang coexist, in an image of an ancient future.

【참고문헌】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 한양도성,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9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한양도성
- e뮤지엄

讲义

2주차

조선 전기와 한양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6차시	오늘날의 한양

1차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大家好, 我是‘首尔的历史与文化空间’系列讲座中, 负责‘朝鲜前期与汉阳’主题的申虎林. 本课时的主题基本以朝鲜这个国家为背景, 更具体来说的话, 以‘前期’这一时间背景和‘汉阳’这一空间背景为主要素材.

朝鲜是1392年李成桂作为首任国王开创的新国家的名称. 在此之前, 韩半岛曾有过918年建立的、名为高丽的国家. 从历史来看, 讲述首尔的同时说到朝鲜汉阳的理由, 是因为现在的首尔正是从汉阳开始的. 可以说, 从最初建立国家、定都汉阳的朝鲜时代开始, 开启了首尔的历史. 所以讲述首尔的同时考察朝鲜前期与汉阳.

这里需要指出一点. 那就是朝鲜前期是到什么时候. 一般在划分朝鲜历史分界点时, 会以下面两种情况之一进行说明. 一种是分为朝鲜前期和后期. 在朝鲜的历史上, 壬辰倭乱和丙子胡乱被称为两难. 壬辰倭乱爆发于1592年, 丙子胡乱爆发于1636年. 战争给生活在这片土地上的人们带来了巨大的暴力, 战争之后, 之前通用的生活方式和世界秩序崩溃, 出现了新的生活形态和世界观. 战争带来历史上的巨大转折. 因此, 将从朝鲜建国到发生丙子胡乱的17世纪视为‘朝鲜前期’, 将18世纪到19世纪划分为朝鲜后期.

另一方面, 有一种更加细致的划分方式, 分为朝鲜前期、中期、后期. 认为15世纪和16世纪是朝鲜前期, 17世纪是朝鲜中期, 18世纪和19世纪是朝鲜后期. 当然, 在这种时期的划分中, 战争也是时期转换的重要指标. 其差异在于将战争时期视为一段独立的历史时间. 本课时我们将以前者的观点设定朝鲜前期. 其中只探讨壬辰倭乱时期之前的内容.

‘朝鲜前期与汉阳’中本课时的主题是‘朝鲜的建国与汉阳’. 朝鲜建国之前有一个叫高丽的国家. 高丽的首都开京, 是现在的开城地区. 汉阳在高丽时代被称为‘汉阳府’, 也被称为具有南方首都意义的‘南京’. 实际上, 在高丽时代末期, 禑王和恭让王统治时期, 汉阳还作为首都发挥了作用. 所以伴随朝鲜建国, 南京地区自然而然地成为了首都, 以汉阳之名延续到了现在的首尔. 本课时讲述朝鲜建国的理由正在于此.

随着朝鲜这个国家历史的开始，汉阳成为了首都。为了了解首尔，首先要了解朝鲜的历史。应该提出朝鲜是如何建国的，汉阳作为首都正式发挥作用，具有怎样的文化意义等问题，并寻求答案。

如果要探讨朝鲜的建国，就不得不简单了解一下高丽的历史。当然，虽然很难一次性整理一个国家历史，但简短地了解一下需要的部分。高丽是918年，由王建建立的国家。王建与形成地方势力中心的豪门建立了紧密的关系，强化了王权。随着时间的推移，豪门逐渐成长为门阀贵族。他们掌握中央权力，开始利用‘荫叙’等制度世袭自身的权力。

荫叙指的是即使不参加像科举一样的国家考试也可以获得官职的制度。那么与通过荫叙进入政界的势力不同，自然也有通过科举获得官职的集团。为了方便起见，他们被称为‘新进士人’。可以说是全新崭露头角的知识分子集团。他们在与门阀贵族的对立关系中，试图壮大自身的势力，但要想挫败势力已经得到巩固的门阀贵族的权势并非易事。1170年，爆发了‘武臣之乱’。武臣之乱是无法忍受文臣横行的武臣集团制造发动暴乱并掌握权力的事件。这就是所谓的‘武臣政权’的开始。当时文臣以门阀贵族为中心。因为仅靠武臣很难治理国家，所以武臣政权开始保护和培养与门阀贵族对立的新进士人。形成了一种共生关系。

但武臣政权确立后，高丽也无法进入稳定期。1231年开始被蒙古侵略，1361年红巾贼入侵。在外国势力的不断侵略下，高丽国力开始逐渐衰退，最终接受了元朝的统治。被元朝统治的同时，又出现了另一股势力。正是被称为‘权门世族’的势力掌握了政权。权门世族在受到蒙古入侵的高丽成为元朝的驸马国的时候，效忠于元朝，扩张了权力。这个时期的高丽王的名字都有‘忠’字。忠烈王、忠宣王、忠肃王、忠惠王、忠穆王、忠定王等高丽第25代王到第30代王的名字中都有‘忠’字。忠是对元朝效忠，这也是高丽屈辱的历史。

当权门世族掌握政界时，出现了牵制他们的势力。被称为新兴士大夫的集团。他们将儒学中的性理学作为思想武器，构筑自身的政治认同感，开始培养对抗权门世族的力量。新兴士大夫正是朝鲜建国的主角。推举李成桂为王，建立朝鲜的新兴士大夫以自身的政治武器—性理学为基础，开始创造新的世界。原来高丽将佛教作为思想和宗教的基础。现在发生了从佛教到性理学的思想转变。

新国家的建立意味着各个方面都发生了巨大的转变。也可以在这种变化的延续中理解汉阳。将朝鲜的都城重新定位为不同于高丽都城的汉阳，是为了象征性地展现这种全新的出发和转换。当然也可以自然地牵制扎根于都城的既存土著势力。

在这里，都城是‘首都’的意思。首尔本来就意味着一个国家的中央政府所在地。这个词被用作代表韩国首都的地名。在全世界，用首尔(都城)这个词直接命名首都，韩国是第一个也

是最后一个. 本课时我们了解了朝鲜建国前的高丽的历史.

具有不同于朝鲜的性格的高丽, 从首都的位置到支配该时代的思想背景, 都有着不同的面貌. 不管怎么说, 在宣告新的开始的新国家建国时, 必须表现出与既往国家不同的面貌, 因此不仅要改变思想基础, 还要更换都城. 如此更换的都城是朝鲜的汉阳. 在朝鲜的新起点汉阳, 首尔的历史将正式开始.

【참고문헌】

- e뮤지엄

2차시 고려 시대의 문학

학습 목표

-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在正式探讨朝鲜和汉阳之前，我们先来看几篇反映高丽末期情况的文学作品。现在说高丽时代是‘汉诗时代’也不为过。汉诗是用汉文写的诗。但虽然说是‘诗’，其内容并不局限于抒发心灵的情绪。展现当代现实的诗文学也相当多。

首先要看的作品是新进士人的作品。新进士人是对抗掌握政权的门阀贵族的势力。所以他们的诗中有描写农民生活的作品。在此将来看一下金克己的作品〈宝山驿〉。

金克己以农村和农民为题材，留下了大量诗作。科举及第后未能被马上启用，流浪了10多年，在全国旅行，观察农民的生活。在担任官职后也经常旅行，亲眼目睹生活的现实，并将其搬到诗中。虽然文集没有流传至今，但《东国輿地胜览》中收录了超过200首他的诗作。

一村藏洞壑，桑柘四三家。

渔父静垂饵，猎儿闲结置。

坞松风落子，墙藓雨添花。

羡尔耕蚕外，闲安度岁华。

〈宝山驿〉在描绘田园牧歌风景的同时描写了农民的生活场景。通过这首诗可以感到悠闲的情景和对此表达羡慕之情的话者的叹息。这是在混乱的政治现实中，与当时士人梦想的、在江湖自然中的自由生活相联系的节点。但有趣的是，除了耕田养蚕的劳动生活以外，其他的一切都很羡慕。这是新进士人的特征之一。他们身处农民生活的现场，却不直接参与他们的劳动。以一种观察者的立场来看待农民。

再看一首诗，是李奎报的诗。相较于金克己，他以汉诗描绘了更加深化的现实。他自小

文才出众，但曾在科举中反复落榜，在武臣政权上台后，他受到了武臣的保护，走上了立身扬名的道路。来看一下李奎报的诗作〈代农夫吟〉。

带雨锄禾伏亩中，形容丑黑岂人容。
王孙公子休轻侮，富贵豪奢出自依。
新谷青青犹在亩，县胥官吏已徵租。
力耕富国关吾辈，何苦相侵剥及肤。

在这首诗中，可以看到农民作为话者直接表达愤怒情绪的方式。农民对现实矛盾的强烈反抗心理和愤怒情绪的直接表露，也是令人印象深刻的汉诗。但另一方面，考虑到李奎报的身份和阶级，很难说他是在农民的生活现场共呼吸、同劳作的。〈代农夫吟〉所展现的抗议，停留要求正当承认农民的作用和辛苦的层面上。当然，从时代角度来看，这可以说是非常有进步性意识，但可以说李奎报与观察农民并代表他们立场的金克己几乎处于相似的位置。

既然看完了新进士人的诗作，那么接下来看一下新兴士大夫的诗作。首先要讨论的诗作是李谷的作品。李谷是韩山地区乡吏李自成之子。曾在元朝居住，先后担任了高丽、元朝两国的官职。还留下了“勤则为君子，惰则为小人。勤则可至于富贵，而惰则卒至于贫贱，此理之常也。”的话。这也可以说是展现了不同于权门世族，只能通过自身的能力和努力实现中央政权的新兴士人的生活信条。

对于李谷而言，权门士族只能是批评的对象。所以李谷还留下了这样的话。“今本国之俗，以有财为有能，有势为有知，至以朝衣儒冠，为倡优杂剧之戏，直言正论，为闾里狂妄之谈，宜乎国之不国也。”由此可以确认，对权门世族的严厉批评与作为新兴士大夫的自负和抱负的悖论性雄辩。

李谷的诗作中有一首题为〈纪行一首赠清州参军〉的作品，读一下其中的一部分。

十里五里间，驰传纷可惊。
下马立道侧，过眼知流星。
吾疑将德音，布兹南亩氓。

或云算间口，抽钱及孤惇。
或云笼山野，割地归兼并。
我欲买山去，凿翠开风棂。
园中养松竹，门外种稔秔。
茂树坐郁郁，清泉饮泠泠。
日读洗心经，无令世故婴。
尺地入金穴，何处安柴局。
所以事奔走，终岁不得宁。

本诗阐明了土地所有者与乡村佃农之间的矛盾结构。前半部分描绘了因残酷的税金和权势人物的土地兼并而呻吟的农民的悲惨处境，后半部分则吟咏了即使想从中央政界隐退回到乡村务农，但连一寸土地也都被权势人物收入囊中，无法生存的自身处境。

新兴士大夫也是位于土地所有者和乡村佃农的矛盾结构中的边界人。权门世家的土地剥削和兼并也成了中小地主阶层新兴士大夫的直接威胁。因此，同情和抚慰农民的悲惨处境的同时对权门世族的横行感到愤怒，以此巩固自身的政治、学术地位。还有一点值得注意的是，新兴士大夫的处境与农民的处境没有太大区别。所以与新进士人相比，他们更加贴近农民的生活，可以以农民的视角看待世界。

下一首诗是尹汝衡的《橡栗歌》。尹汝衡除了曾担任过成均馆学谕的九品官吏的记录以外，没有其他记录为人所知的独特人物。通过诗作可以推测，他曾在江原道流浪，曾经在全罗道灵光的某个寺庙中寄居生活，只知道他是主要在民间活动的人物。与记录的不足相比，尹汝衡的《橡栗歌》广为人知。可以说是因为很好地反映了农民的生活。他亲自体验了耕作，比观察更近距离地感受了当时农民的实际情况。

从他所说的“补国无长策，抛书学老农”的话中，可以看出尹汝衡的人生态度。可以发现其在无法作为士大夫进入仕途的时候，隐退务农的中小地主阶层的生活姿态，由此可见新兴士大夫的官人意识。

这首诗稍长，慢慢读一下。

橡栗橡栗栗非栗，谁以橡栗为之名。
 味苦于荼色如炭，疗饥未必输黄精。
 村家父老裹糗粮，晓起趁取雄鸡声。
 陟彼崔嵬一万仞，扞萝日与猿狖争。
 崇朝掇拾不盈筐，两股束缚饥肠鸣。
 天寒日暮宿空谷，烧桂燃松煮溪荻。
 夜深霜露满皎肌，男呻女吟苦悽咽。
 试向村家问老农，老农丁宁为予说。
 近来权势夺民田，标以山川作公案。
 或于一田田主多，徵后还徵无间断。
 或罹水旱年不登，场圃年深草萧索。
 剥肤槌髓扫地空，官家租税奚由出。
 壮者散之知几千，老弱独守悬磬室。
 未忍将身转沟壑，空巷登山拾橡栗。
 其言悽惋略而尽，听终辞绝心如噎。
 君不见侯家一日食万钱，珍羞星罗五鼎列。
 馭吏沉酒吐锦茵，肥马厌谷鸣金埒。
 焉知彼美盘上餐，尽是村翁眼底血。

第一部分描绘了为捡橡子而徘徊在山上的男女村翁的凄惨景象。橡子虽然比苦菜苦，但还是被称为橡栗，说明了辛苦捡橡栗的原因。第二部分通过农夫的话语告诉大家，权门世族剥削、兼并民田，逼迫农民的样子和催促交租的事实。通过这一场景可以知道他们为什么捡橡栗。从这一部分可以看出，壮丁们全部逃跑，只剩下老弱病残者苟延残喘的生活景象。第三部分表达了对权势阶层的愤怒。

前面作为新进士人的事例提到了李奎报。李奎报批评的对象没有从对农民的错误认知

或肆意进行不正当掠夺的贪官污吏的层面更进一步。但尹汝衡将权门世族设定为打破的对象，在用诗形象化的过程中确保了具体性。这可能就是新进士人与新兴士大夫的差异吧。在尹汝衡时代，新兴士大夫逐渐集结成为独立的政治势力，甚至得以期待创造新的政治结构，在这种期待下，需要打破的对象被更加明确地刻画为权门世族。

由此可见，新兴士大夫继承了新进士人关于社会矛盾的认知，以及在其形象化的过程中对于劳动和生产的主体农民的认知，另一方面也将其与自身的历史地位和前景联系在一起。

像这样在高丽末期成为新势力的新兴士大夫将权门世族作为具体的批判对象，将自身势力具体化，并推举崔莹将军和当时最优秀的武将李成桂，成为灭亡高丽、建立朝鲜的主要势力。李成桂成为朝鲜的太祖，引领了新王朝。在此过程中，新兴士大夫的帮助很大，因此朝鲜也是大臣的权力相当强大的国家。

因此，尽管朝鲜是王朝国家，但在其历史上，王权和臣权之间始终存在着紧张和矛盾。汉阳作为朝鲜的都城，处于这种紧张和矛盾的中心。在理解朝鲜前期的汉阳的过程中，这种历史背景也提供了重要的指导。太祖李成桂创立朝鲜之后，在汉阳强化了以郑道传为中心的臣权，李成桂的儿子太宗李芳远发动了王子之乱，之后被称为大王的世宗的治世，这一切都是以汉阳为中心发生的。

【참고문헌】

- e뮤지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고전번역원

3차시 조선의 건국과 문학

학습 목표

- 조선 전기 사대부의 문학을 통해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

本课时将以‘朝鲜前期的主要事件与汉阳’为主题进行授课。在建立国家时，除了确定首都之外，还有很多事情要做。其中最重要的事情就是确立新王朝的正当性。朝鲜是由以性理学理念武装的中小地主阶层出身的新兴士大夫与李成桂的军阀势力联合建立的国家。李成桂通过易姓革命开创了朝鲜王朝，易姓革命的理论基础是高丽末期新兴士大夫阶层确立的。

这种理论基础通过多种文学作品被形象化。然后将这些作品收集起来，称之为乐章。包含对新王国和国王的颂扬、新时代新主角们的渴望以及对后代国王的劝戒等内容的乐章，是在宫中祭祀宗庙时演唱的一种颂祝歌。从《乐学轨范》，《乐章歌词》，《时用乡乐谱》等著作中可以确认其面貌，诞生于朝鲜初期，世宗时期盛行，成宗以后消失了。在音乐上被认为是时调的始祖，其特点是采取4句2节的形式。从内容上看，大部分都是称赞朝鲜建立的内容，朝鲜王朝的权臣是主要享有阶层。我们在此考察一下具有代表性的〈儒林歌〉、〈新都歌〉、〈龙飞御天歌〉。

首先是〈儒林歌〉。儒林指的是以性理学为思想基础的新兴士大夫。来看一下现代语版本。

五百年过去了 黄河清澈见底
圣主重兴国家 万民咸乐
高丽王朝五百年过去了 沂水清澈
圣主重兴国家 百谷丰登
我穷且乐 我穷且乐 穷且乐
浴乎沂 风乎舞雩 咏而归。

最后一句取自《论语》。孔子询问弟子们各自的理想时，所有人都谈到了政治，当时只有曾皙这个弟子回答道：“莫春者，春服既成，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浴乎沂，风乎舞雩，咏而归。”孔子称赞了他。可以说，是在谈论政治的同时，吟咏了与政治相距甚远的自然中的安贫乐道。中间用‘叶’表达的副歌部分，既保留了节奏，又具备汉字的意思。可以说是独特的文学和音乐形式。〈儒林歌〉歌颂了儒林自身的理想，强烈地反映了期待作为新王朝的朝鲜建国的伟业，实现文治太平的心理。由此可见，副歌的多重表达指向安贫乐道的生活。安贫乐道意为以舒适的心情享受贫困的生活并遵守道义，指的是对财富没有欲望，以自然为友的生活。所以通过〈儒林歌〉可知，“现实政治生活是自然的生活，是安贫乐道”。儒林们追求的性理学理想是从自然中掌握世间的道理，在其中过着安贫乐道的生活，这与现实政治一致，可见这是一个太平盛世。虽然不知道实际上过着怎样的生活，但通过〈儒林歌〉可以知道当时的儒林们对朝鲜王朝何其自豪。因为说实现了性理学理想的国家就是朝鲜。

第二篇章作品是〈新都歌〉。就像题目一样，是关于新都城的歌曲。就是汉阳。据悉，〈新都歌〉是郑道传的作品。

以前扬州乡村
 此处新都好风景
 开国圣王成就了太平盛世
 不愧是都城 现在的景色 不愧是都城
 圣寿万年 万民咸乐
 啊 多农多利
 前面是汉江水 后面是三角山
 德重江山 尽享万岁

第1~2句称赞了新都城，第3句颂扬了太祖李成桂的圣德。第4句再次称赞了新都城，接着第5句颂扬了太祖的圣德。“啊，多农多利”可以说是高丽歌谣的痕迹，是一种余音句。可以说表明这首歌被作为音乐演奏的标志之一。然后在第6句再次赞扬新都城，最后颂扬了李成桂的圣德，歌曲结束。〈新都歌〉叙述了新都城的位置、作为都城的地位、风水特征等，赞扬了新都，其间还一并颂扬了李成桂的圣德，由这种反复结构构成。另外，这首歌还设定了朝鲜的建国

就是百姓幸福的构思。这一点可以从“圣寿万年 万民咸乐”中得知。因此,〈新都歌〉创造了“对太祖的称颂是百姓的幸福,即朝鲜建国是理所当然的,是自然风景”的构图。更具体地说,现在的此地,汉阳正是作为自然的汉阳,是作为百姓幸福之地的汉阳。以汉阳为媒介,歌咏政治、自然、现实的充实感就是〈新都歌〉。

最后要看的作品是〈龙飞御天歌〉。可以说是世宗27年、1445年完成的朝鲜建国神话、乐章。〈龙飞御天歌〉是最早以训民正音记录的文献,也是最早的长篇叙事诗。诗歌题目也意味深长。‘龙飞’意味着英雄得志兴起。‘御天’是‘御驾于天’的意思,强调符合天命的处身结果导致了朝鲜的建国。最终‘龙飞御天’是龙飞起来效仿上天处身的意思,〈龙飞御天歌〉可以说是龙飞上天履行天命的歌曲。龙是力量和权力的象征,意味着帝王。因为是讲述国王们出生后建立国家的故事的歌曲,所以〈龙飞御天歌〉也被称为朝鲜的建国神话。虽然创作〈龙飞御天歌〉的理由有很多,但据悉,其内在动机是通过强调朝鲜建国的正当性,以收复民心,以及为了劝诫后代君王。劝诫是指为了不出错而提前教导。外部动机是训民正音的试用,以及为了赋予国王尊严。

〈龙飞御天歌〉相当长。总共由125章构成。第1~2章作为叙事,是表明建国正当性的内容。被称为‘开国颂’。第3~109章作为本词,配合中国典故和对偶,礼赞了六祖的事迹。被称为‘事迹赞’。六祖是指穆祖、翼祖、度祖、桓祖、太祖、太宗。处于第五位的太祖是建立朝鲜的太祖李成桂,处于第六位的太宗是李成桂的儿子李芳远。下令撰写〈龙飞御天歌〉的世宗是李芳远的儿子。六祖是指世宗的6代祖,即6代祖上。最后,第110~125章作为结词,以对后代君王的劝诫结束。被称为‘诫王训’。

首先用现代语翻译一下叙事。“海东六龙飞 / 莫非天所扶 古圣同符”‘六龙’强调的是朝鲜建国是6代祖的功业。‘莫非天所扶’指的是朝鲜的建国依据天命所为,从中可以找到正当性。“根深之木,风亦不扞,有灼其华,有蕢其实。源远之水,旱亦不竭,流斯为川,于海必达。”‘根深之木’和‘源远之水’象征朝鲜的永恒性。按照天意,以六代祖的功业建立了朝鲜,祈愿朝鲜的历史是永远的。

本词只看3章,翻译成现代语如下所示:

“昔周大王,于豳斯依,于豳斯依,肇造丕基。

今我始祖,庆兴是宅,庆兴是宅,肇开鸿业。”

上面一句写的是中国典故,下面一句是朝鲜的情况。‘豳谷’是哪里呢?据说,周朝祖先后稷从小胸怀大志,长大后喜农事,百姓纷纷效仿他。后稷的后代公刘曾靠近戎狄的领土生活,

重新兴起了后稷之业，在豳谷建立了国家。朝鲜的情况如下。六祖中的第一代，穆祖住在全州，与州的官吏关系不好，迁至三陟，后来又迁至咸吉道德源府，据说有170余户跟随他。后来归附元朝，在庆兴担任官职，东北的人们又都跟随他，王业的兴起由此开始。通过与中国的事迹进行比较，重新找到了朝鲜建国的正当性。在中世纪，中国是大国，因此可以说是通过与大国历史的比较，展现朝鲜和中国没有什么不同的节点。

最后看一下第125章。翻译成现代语来看一下。

“千世默定汉水阳，累仁开国卜年无疆。

子子孙孙，圣神虽继，敬天勤民，乃益永世。

呜呼！嗣王监此，洛表游畋，皇祖其恃。”

从“千世默定汉水阳”中可以看出，现在的朝鲜是受天命而积德的状态。还有“敬天勤民，乃益永世”，没有忘记对后代君王的劝诫。想要延续天命的话，后代君王也要恭敬上天，侍奉百姓。“洛表游畋”是中国的典故。夏朝的太康王只相信祖父禹王之德，沉溺于狩猎，说的是如果只相信先王而懒惰，国家就会灭亡。

像这样，〈龙飞御天歌〉基本上由朝鲜建国的正当性和对后代君王的劝诫构成。如果读完整体的话，会发现有趣的地方。就是把太祖李成桂描绘成了儒家性的武人，moral giant。李成桂基本上是武人，但具有道德卓越性的、仁义的守护者。另一点就是强调了朝鲜这个新国家与高丽不同。在〈龙飞御天歌〉中，把高丽末期的禑王或次王刻画得既软弱又野蛮。可以说这是通过贬低之前的高丽这个国家，从而将建国主打造成完美的理想型，从而提高朝鲜的地位的策略。

〈龙飞御天歌〉在现代被用作另一种含义。2013年高中生对国语教师提出的101个问题之一就是“为什么把阿谀奉承的人称为唱〈龙飞御天歌〉呢？”这可能是由于在〈龙飞御天歌〉中发现了确保王朝创立的正统性、正当性的严密的资料调查和叙述策略。所以，其实在谈论〈龙飞御天歌〉时，相较于单纯地将其与阿谀奉承联系起来，更需要关注的是如何进行阿谀奉承。

联想一下的话，现代社会也有与〈龙飞御天歌〉等乐章性质相似的歌曲。1980年代初期出现的所谓健全歌谣，可以说是第5共和国为了有效履行社会净化业务，从政府层面强迫要求的、独特形态的制度。1983年，在向国民鼓吹主人翁意识的宏大意图下，与韩国广播公社一起，以Omnibus的形态制作了健全歌谣。歌手丁秀罗演唱的〈啊！大韩民国〉，歌手李涌演唱的〈首

尔)可以说是代表性歌曲. 我们谈到了汉阳这个都城, 来看一下〈首尔〉的歌词.

在钟路种苹果树吧
在那条路上怀揣梦想前进吧
在乙支路种柿子树吧
柿子熟的时候爱情也熟了
啊啊啊啊 我们的首尔 我们的首尔
每条街道都洋溢着蓝色的梦想
我爱美丽的首尔
每座大楼让所有的鸟儿都来
听着啼鸣的歌声
让美丽的花朵在街道上绽放吧
如花绽放 爱情也绽放
啊啊啊啊 我们的首尔 我们的首尔
每条街道都洋溢着蓝色的梦想
我爱美丽的首尔

大家觉得怎么样呢? 与郑道传的〈新都歌〉有相似的部分吗? 可以看到过去和现在都在祈求太平盛世的汉阳与首尔交织在一起的景象.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벅스뮤직

- 전통문화포털
- 한국관광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e뮤지엄

4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조선의 건국

학습 목표

- 조선 건국을 다룬 사극 드라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仅从‘乐章’来看, 朝鲜前期, 朝鲜这个国家与汉阳这个都城, 以及建国的主体-国王和儒林们, 似乎是在和谐的气氛中度过了太平的历史时光. 但实际上, 历史时间并没有如此和平地流逝. 典型事件就是‘王子之乱’.

1392年, 朝鲜建国时, 太祖李成桂的年龄已经五十多岁了. 于是接班人问题凸显了出来. 最终, 为了清除李芳硕和郑道传一派, 以李芳远为中心发起了叛乱, 之后经历了定宗, 李芳远成为了太宗. 1398年发生的王子之乱, 是朝鲜建国不过6年后的事情. 由此可见, 与歌颂太平盛世的乐章内容不同, 朝鲜的王权还没有稳定下来. 通过一种易姓革命开启了新国家后, 汉阳也沾满了鲜血. 难道是因为这个原因吗? 这个时期后来被用作历史电视剧的素材.

‘历史剧’是指以过去特定时代为主要要素进行创作、拍摄的历史电视剧、电影、话剧, 在韩国一般指历史电视剧. 其中传统历史剧是以历史资料为基础, 为了再现事实, 最大限度地克制虚构和现代感的作品. 最具代表性的是《龙之泪》这部作品. 《龙之泪》是1996年11月24日至1998年5月31日播出的KBS周末历史剧. 以从高丽末期的1388年到朝鲜建国后的1422年, 共34年的时间作为时代背景, 以汉阳为主要舞台. 作为巩固KBS电视剧地位的、具有里程碑意义的作品,

据说, 仅服装制作费就投入了10亿, 共投入了160亿的制作费, 出演这部作品的人员共有7950名, 临时演员足足投入了50000多名. 这可以说是比一般电影更大的规模. 特别是《龙之泪》是首次使用《朝鲜王朝实录》的历史剧, 这一点具有重大意义. 《朝鲜王朝实录》虽然于1993年被首次全译, 但因其庞大的分量而很难使用. 1995年, 以CD-ROM出版了《朝鲜王朝实录》, 可以轻易搜索到需要的部分. 因此, 在创作历史剧剧本时, 可以正式利用《朝鲜王朝实录》. 所以威化岛回军和王子之乱等历史事件被描写得相当写实.

1388年, 为攻击明朝而出征的李成桂重新回到高丽, 废黜了高丽禑王并掌握政权的事件, 被称为‘威化岛回军’, 在此事件中, 李成桂和李芳远充满野心的一面, 王子之乱中, 血肉横飞的现场中其人性的一面, 都被搬上了银幕.

虽然太宗在《龙之泪》中的比重相当高，但也有将李芳远全面推上舞台的历史剧。正是《太宗李芳远》。从2021年12月11日到2022年5月1日播出的第33部KBS长篇电视剧，共由32集构成。以朝鲜第三代国王太宗为主角，太宗的诸多面貌中，以奠定新生国家朝鲜基础的形象为重点拍摄而成。电视剧很好地刻画了从高丽末期开始，历经朝鲜建国，王子之乱之后李芳远登上王位，直至去世的过程。虽然是《龙之泪》已经描写过的事件，但该作品从李芳远的角度进行了重新诠释。

如果说《太宗李芳远》是从李芳远视角描绘的朝鲜前期的历史电视剧，那么也有从其他角度拍摄的历史电视剧。就是《郑道传》。2014年1月4日至2014年6月29日播出的第30部KBS长篇电视剧，共50集。以郑道传的壮年和中年时期为中心，以高丽末期到朝鲜初期的动荡期为背景，描绘了郑道传从恭愍王末年的1374年至在与李芳远斗争中失败而最终迎来的第一次王子之乱的1398年。从电视剧的介绍来看，可以确认虽然是历史剧，但把重点放在政治上。《郑道传》讲述了为了改革世界而相见的同志们与经历世界风波后，他们之间发生意见冲突，相互争斗、背叛、杀害的过程。特别是，与因威化岛回军与祸王、昌王的废位，伴随着以郑道传为代表的强硬派和以郑梦周为代表的稳健派的分裂而开始的《龙之泪》不同，在《郑道传》中，重点描绘了两方势力之间亲密相处之后产生分裂的样子，试图进行差别化的呈现。由此可知，根据从谁的角度看待历史，电视剧的再现情况也会有所不同。

另一方面，也有完全不同的感觉的电视剧。就是《六龙飞天》。《六龙飞天》是从2015年10月5日到2016年3月22日播出的、纪念SBS创立25周年特别企划的SBS长篇电视剧。《六龙飞天》将高丽这个国家想象成巨大的邪恶，讲述为了毁灭高丽而发生的六名人物的故事。《六龙飞天》最大的特点是，该剧不是传统历史剧，而是融合历史剧。本来《龙飞御天歌》中的‘六龙’指的是朝鲜的6代祖，但电视剧中的设定完全不同。可以说是虽然得到了大众的反响，但在历史考证方面，存在很多问题的作品。用现代的感触讲述历史故事，必然会出现这样的问题。但重要的一点是，以完全不同于以往历史剧感觉重新描绘了朝鲜建国过程。也可以说是可以确认如何不同再现朝鲜前期以及汉阳这个空间的作品。

【참고문헌】

- 동아일보
- KBS
- SBS

5차시 오늘날 대중문화 속 세종대왕과 한글

학습 목표

-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세종대왕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本课时将以‘朝鲜前期的世宗大王与韩文’为主题进行授课.

朝鲜建国时, 建国主角们充满希望的样子与实际历史形成了鲜明的对比. 因为该时期非常有魅力, 所以以朝鲜前期为背景拍摄了很多历史剧. 但是继太宗之后的世宗时期也不容小觑, 今天也以文化产品重生了. 进入太宗时代, 朝鲜的王权相当稳定. 在如此稳定的环境下成为国王的世宗, 被誉为绽放灿烂文化的国王.

世宗大王是朝鲜的第四代国王. 庙号为世宗, 谥号为庄宪, 尊号为英文睿武圣明孝大王, 本名李祹, 字元正, 乳名是老小. 世宗大王出生于距离1392年朝鲜建国的5年后的1397年. 从某种角度来看, 与作为高丽人的太祖、定宗、太宗不同, 可以说是首位作为朝鲜人出生的朝鲜国王.

世宗大王在位32年的时间中留下了无数政绩, 被称赞为代表朝鲜时代历史, 乃至代表韩国历史的最高圣君. 作为与广开土大王一样, 唯二以大王这一称呼在大众中广为流传的君王, 世宗大王经常和忠武公李舜臣将军一并被选为韩国最伟大的人物. 世宗大王创制的‘训民正音’被指定为现代的大韩民国和北韓的公用文字, 世宗大王时代确立的北方国境直接成为韩半岛以北地区的国境, 一直延续至今. 世宗大王的治世对现代韩国人的文化和生活也产生了巨大影响, 因为这样的功绩, 世宗与李舜臣一起成为了韩国人最尊敬的人物.

另外, 世宗大王对科学也非常关心, 在位时期还发明了日晷、水漏、测雨器、浑天仪等. 世宗大王的功绩中最具代表性的就是‘训民正音’的创制. 训民正音是1443年世宗创制的文字的名称, 虽然作为韩文相同的意思使用, 但还有包括世宗撰写的序文、文字目录以及使用规定的《训民正音·例义》, 以及进行解例的《训民正音·解例》. 《训民正音》此书有《训民正音·例义》和进行解释的《训民正音·解例》两种. 而《训民正音·例义》存在汉文实录本和对其进行谚解的《训民正音》国译本.

来看一下训民正音创制相关记录。如表所示，1442年世宗大王指示编纂〈龙飞御天歌〉。〈龙飞御天歌〉是以训民正音创作的一种朝鲜建国神话作品。终于在1443年创制了28个谚文。我们常说训民正音的创制是在1443年完成的，正是1443年12月的事情。但并不是所有人都欢迎训民正音的创制。崔万里等大臣在1444年就提出了反对，进行了上疏。但世宗大王并没有停止，1446年9月完成了《训民正音》一书，发行了各种书籍。那么世宗大王为什么认为应该创造训民正音呢？

训民正音的完成，意味着完成了可以表記韩语的我们固有的文字体系。在训民正音创制之前，只能借用中国的汉字或吏读进行表記，因此韩语的表达和文字的表达不一致，导致在完全表达想法或感觉方面受限。在朝鲜王朝，汉字是除了士大夫以外，其他百姓都极其难以接近的文字，因此百姓的文字生活几乎是不可能的。在这种情况下，训民正音的创制才意味着普通百姓也可以参与文字生活。

这部分真的很重要。意味着文学的literature的词源是literacy。literacy是文解力的意思。当时朝鲜只有少数群体具有阅读和使用文字的文解能力。因此，出现了所有百姓都可以使用的文字，意味着弱化或分散了具有这种文解力的少数集团所拥有的权力。不顾众多大臣的反对，世宗大王创制的训民正音成为韩国的文字，诞生了大量的文学作品，创造了韩国独有的多元化文化。当然，这并不意味着不再使用汉字。在重要的公文或男性活动中仍然使用汉字，训民正音以低层人或女性为主被使用。汉字和训民正音的双重使用形态，即便进入20世纪也在一定程度上持续着，随着‘韩文’一词的出现，韩文逐渐开始被作为代表性文字使用。重新回到世宗大王时期看一下。

朝鲜建国后，即便是被认为一定程度上稳定的世宗大王，即位之后，在汉阳也发生了围绕创制韩文的矛盾。对于朝鲜应该成为什么样的国家的思考，无法统一，在此过程中出现了有关训民正音创制的事件，矛盾暴露在历史表面。虽然从某种角度来看，世宗大王是韩国最受尊敬的历史伟人，但那个时代的文化兴盛是从这种矛盾中产生的。也许正因如此，不仅是高丽末期和朝鲜建国时期，世宗大王统治时期也成为了很多内容物的创作素材。那个时代的汉阳以宫殿为中心，开始在各种电视剧和电影中被再现。

先来看一下电视剧。代表作品有《树大根深》。作为2011年10月5日至2011年12月22日播出的SBS融合历史剧，讲述了朝鲜初期世宗李祹的韩文创制和与之对抗的祕密组织密本的故事。‘树大根深’取自〈龙飞御天歌〉第二章的第一句，在电视剧中也有代表祕密组织密本追求的世界，即宰相成为根基的国家的意思。《树大根深》剧中有三个时间节点。一个是世宗24~25年，一个是世宗26年，最后一个世宗28年。都与训民正音的创制有关。一般认为1443年是训民正音的创制时期，1446年是训民正音颁布时期。训民正音的创制及颁布时期是《树大根

深》的时间背景。但实际上训民正音被颁布了吗？

事实上，不将创制新文字的世宗25年视为创制时期，而是将完成《训民正音·解例》的世宗28年9月视为颁布新文字的时期的观点，存在很多问题。在朝鲜朝文献记录中，无法找到任何关于刊行并颁布《训民正音》的内容。只是在崔万里的上疏文中可以找到‘广布’这个词。如今所谓‘颁布’的用语，是将崔万里反对使用谚文的上疏文中出现的‘广布’一词意义扩大化，解释为‘颁布’的结果。这是因为朝鲜语学会正式举行了韩文颁布纪念仪式，所以不得不将‘颁布’视为固定用语。北韩全面否定颁布韩文的说法，将世宗25年阳历1月作为韩文创制日进行纪念。

以郑道传为首，试图将朝鲜打造成大臣国家的团体就是密本。密本暗杀为创制训民正音而秘密活动的成员，偷偷煽动参加反对创制训民正音、表现过激的成均馆儒生朴世明，杀害为传播训民正音而秘密活动的广平大君。而且，还在训民正音的颁布仪式上，企图暗杀世宗。从某种角度来看，《树大根深》中的汉阳是展开善与恶对决的空间。分为以世宗大王为首的试图完成韩文创制的势力和以密本为中心牵制他们的势力。由此可见，在创制韩文的背后，以君王为中心的王朝国家和以臣子为中心的宰相国家的彼此不同的意识形态正在发生冲突。

现在来看一下电影。讲述世宗大王创制韩文过程的电影有《国之语音》。《国之语音》是2019年7月上映的韩国历史电影。一般认为世宗亲自创制训民正音的说法最有力，但《国之语音》是以世宗协助信眉训民正音的说法为基础拍摄的。因此，这部作品也受到了很多关于歪曲历史的批评。只是我们关注的地方是有关汉阳的。与《树大根深》相比，《国之语音》中的汉阳更为深刻。

首先，基本构图仍然是崇尚佛教的女性人物与排斥佛教的男性人物的矛盾。在这里，世宗大王试图创制训民正音，汉阳马上发生了动乱。可以说几乎没有拥护世宗大王的势力。这时世宗大王遇到了一个叫信眉(音译)的僧人。从此，被朝廷排斥的佛教人物偷偷进入宫殿，开始创制训民正音。后来，汉阳的情况变得不好，有时会在汉阳外进行工作。在汉阳不受欢迎的佛教和训民正音的创制以世宗大王为媒介融为一体，可以说这是《国之语音》的构图。经过一番周折，完成了韩文的创制，并且在一定程度上确保了国家对佛教的认可，电影就此落下帷幕。

如果说《树大根深》中以韩文的创制为中心展开了王权和臣权的对决，那么《国之语音》则是以韩文的创制为中心，展开了儒教与佛教之间的矛盾。而且这种对决和矛盾都集中在了汉阳。汉阳现在可以说是首尔的前身，但从建国过程开始到世宗时代为止，可以说是积累了众多建国主体交错的欲望和志向的空间。所以16世纪之后登场的所谓士林派从朝廷所在的汉阳退下来，搬到位于地方的自己的居住地后，将汉阳描绘成了红尘滚滚的空间。与停留在干净安静的江湖自然中探索性理学道理的自身不同，汉阳是政治权谋泛滥、性理学的教诲在政治

上无法实现的地方.

可以这样整理一下, 汉阳作为朝鲜的都城, 虽然成为了新时代的中心, 但这里也被认为
是混沌之地.

【참고문헌】

- 전통문화포털
- wikipedia
- SBS
- KMDB

6차시 오늘날의 한양

학습 목표

- 오늘날의 한양의 경계를 순성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오늘날에 남아있는 한양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다.

本课时将以‘今天的汉阳’为主题进行授课.

汉阳是朝鲜的首都, 日本殖民统治时期更名为京城府, 解放后成为首尔特别市的同时, 吸收了周边的京畿道地区. 所以现在的首尔的面积比汉阳大很多. 为了在首尔找寻汉阳的痕迹, 必须找到全部代表性宫殿和汉阳边界的城墙和城门. 宫殿成为了韩国人和外国人都喜爱的旅游胜地, 城墙被用作承载历史记忆的散步路. 四大门也在其周边形成了独特的商圈, 并一直延续至今.

首先, 今天说到汉阳的话, 一般指四大门的内部, 也可以被称为首尔汉阳都城. 首尔汉阳都城是指位于东大门、西大门、南大门、北大门、四大门内的地区, 也被称为四大门内. 太祖李成桂为建立朝鲜、防卫宫殿和城市建造了都城, 通过这座都城可以了解今天的汉阳地区. 先来看一下汉阳的外围.

曾经也被称为首尔城郭. 据说这里非常适合围绕首尔市中心散步. 过去将沿着汉阳都城散步, 欣赏周边风景的旅行也被称为巡城游戏, 是朝鲜时代汉城府人们的休闲活动之一. 所以也被称为汉阳都城巡城路. 寻访此地的人越来越多了, 成为了代表性的旅游路线. 作为小小的乐趣, 每个大门附近都有印章, 在印章旅游纸上印上每个大门的印章, 就会赠送纪念走完全程的徽章.

首先是仁王山区间. 从仁王山俯瞰首尔市中心就像照片一样. 仁王山区间是从敦义门旧址到仁王山顶、彰义门的路程. 途中经过洪兰坡房屋和社稷隧道, 开始登山路程. 通过外部巡城路线登山, 临近仁王山顶时进入内部巡城路线. 有时会为了欣赏首尔市中心的夜景, 考虑到日落时间, 选择仁王山区间的巡城路线. 接下来是白岳区段. 从彰义门到惠化门的巡城区间以途经北岳山为特征. 不仅是北岳山、青云台, 在大部分区间内都能看到首尔四大门内的繁华景象. 由于开放时间不长, 树木比较茂盛, 彰义门咨询处-马岩咨询处区间的巡城路线, 对于探访时间和出入有限制. 因为这是1968年金新朝一行入侵的路线, 所以是国家

安保重要的地方，因此才有了这样的限制。该事件发生后的40年间，这里一直是不允许民间人士通行的地区，于2007年4月开放，只有通过两端的咨询处才能出入，出示身份证，填写申请书的话，可以租借标牌，在到达对面咨询处时返还即可。从2019年4月5日开始，延长了探访时间，同时简化了探访程序，无需身份确认程序，直接租借标牌。

穿过惠化门旁的昌庆宫路就可以直接进入洛山区间。是汉阳都城城郭的巡城区间中最平缓的路线，途中还有咖啡厅，因此不仅是韩国人，也是在外国人中人气最高的区间。蜿蜒绵长的都城照明展现了相当独特且浪漫的场景。在洛山公园山顶可以欣赏到美丽的城市风景。之后经过暗门，通过内部的巡城路可以进入梨花壁画村，继续沿着巡城路向南走，就可以经过汉阳都城博物馆、首尔城郭公园，到达东大门。兴仁之门区间是兴仁之门，即东大门。经过东大门，接着是二间水门，在东大门运动场旧址上建成的DDP、光熙门。由于干线道路及电车道线早在日本殖民统治时期就已铺设完毕，因此可以说与崇礼门-贞洞地区一样，是汉阳都城受损最严重的区域。

东大门DDP是首尔的地标之一。是位于首尔特别市中区的展览馆及购物中心。由英国建筑师扎哈·哈迪德设计，一度成为话题。2007年，东大门运动场被拆除后，作为东大门运动场开发政策的一环，于2008年动工，6年后的2014年3月对外开放。建筑区域大致由通知区、学习区、生活区、和谐广场、东大门历史文化公园组成。

说到东大门，东大门市场本来比东大门DDP更有名。作为韩国最早的近代市场，东大门市场与南大门市场一起被称为首尔的两大市场。1990年代，发展成为现代化的综合市场园区，沿东大门路建起了许多时尚购物中心，开始具备现代化风貌。2002年5月23日被指定为东大门时装城旅游特区的同时，东大门市场被命名为东大门时装城。作为从凌晨到深夜灯光常明不熄之地而闻名。

南山区间是指从奖忠体育馆到白凡广场的区域。有多处景观优美的观景台。从光熙门到首尔新罗酒店、国立剧场、南山首尔塔，经过安重根义士纪念馆、白凡广场、首尔希尔顿酒店、直至崇礼门的区间。南山有N首尔塔，在天气好的时候，可以在塔观景台上全面欣赏汉阳都城的风貌。崇礼门，就是南大门。南大门是大韩民国1号国宝。意思是最先被指定的国宝。南大门在2008年2月10日因纵火发生大型火灾，倒塌了一半。幸运的是，修复工作在5年后的2013年完成。可以说是首尔的代表性象征物。

另一方面，今天的四大门内还保留着曾经位于朝鲜汉城府内的景福宫、昌德宫、昌庆宫、庆熙宫、庆运宫，即德寿宫。并称为朝鲜的5大宫。其中景福宫内有国立民俗博物馆，附近有国立现代美术馆、首尔工艺博物馆、光化门广场、大韩民国历史博物馆等，有很多可以同时体验首尔过去与现在的空间。因此，这里也是很多游客光顾的地方。

除此之外，还有供奉朝鲜时代历代君王和王妃以及收到尊崇的君王和王妃的牌位的宗庙，这里至今还在举行祭祀仪式或宗庙大祭。宗庙附近的钟路有很多可以享受众多文化的空间，也是人们经常光顾的地方。

汉阳是朝鲜的首都，也是今天首尔的前身。虽然范围发生了很大的改变，但走在首尔的街道上，仍然可以看到很多汉阳的痕迹。沿着汉阳都城巡城路，从汉阳外郭往里看，往里走，就能看到如今现代化的首尔与保留着旧貌的朝鲜汉阳融为一体的古老的未来面貌。

【참고문헌】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 한양도성,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9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한양도성
- e뮤지엄